

제427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
2.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 2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본회의에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재정과 조세라는 핵심적인 국가정책의 영역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고물가, 고금리 기조 그리고 공급망 재편 등으로 세계경제가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고 국내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거대한 과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내외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국회는 견제자이자 균형추로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간다면 민생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MBC, SBS 등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훈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인 국세청장은 국가의 세입을 담당하는 조세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회가 정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광현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

(10시07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임광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서게 되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는 한편 귀중한 충고와 조언은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오랜 기간 국세청에 근무하며 조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훌륭한 기재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조직 내부에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국세행정의 여러 개선할 점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국세행정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세정으로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복합 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친납세자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세의 근본 가치인 과세 형평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필요한 억울함이나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납세 현장에서 세법과 규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를 진심으로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으나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와 같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 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 또한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편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법상의 공제 현실화나 과세 합리화 같은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하겠습니다.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획일적인 조세행정 강화가 아니라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진납부 세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하여 세수 확대에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습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면밀한 기획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 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빈틈없이 찾아내어 징수하겠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할 때까지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나아가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하여는 외국과의 과세정보 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AI, 가상화폐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거래 형태도 복잡·다양해져서 기존에 일하는 방식과 과세 인프라로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 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축적된 수많은 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킴으로써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 세원 발굴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국세청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민 곁에서 경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제개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납세자 주권을 실현하고 합리적인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방대한 국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경제동향 등을 분석하고 국정 운영과 민

간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도 적기에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도, 행정도 결국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주어진다 면 부임 즉시 핵심 분야별로 혁신 TF를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고 국세행정이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국민께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걸맞는 조직문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세청 조직이 하나로 화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선 세무 현장에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원들을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능력을 마음껏 키워 나갈 수 있게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묵묵히 고생한 직원이 대우받고 능력 있는 직원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좋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화합의 인사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 모든 분야의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저부터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 왔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 또한 국민만을 위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그 리더의 कै파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의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혹시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의사진행발언,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임이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원장 말씀인 것 축하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세무법인 선택의 과도한 급성장 그다음에 전관예우 논란 같은 부분들이 이슈가 됩니다.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 같은 경우에 설립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연매출이 45억, 영업이익이 24억 6000에 달하고요. 그다음 해에는 매출이 63억에 영업이익이 31억 8000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세청 차장 출신의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아닌지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또 세무법인 선택 측에 이런저런, 꼭 필요한 특정된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실제로 있음에도 세무법인 선택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에서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실에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지금 임광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차피 국세청장 될 것 아니냐, 국세청장 될 건데 무서워서라도 자료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굉장히 실추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는 세무법인 선택을 위시한 여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의 사례들을 보니까 2023년도에도 민주당 과방위원들 같은 경우에 국회 자료제출의 미비를 이유로 실제 고발을 하신 사례도 있고요, 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관계 기업과 세무법인에서 전관예우 검증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료들조차 내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청문회는 결국 빈 깡통 같은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잘 살피셔서 꼭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동의, 여러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고발 조치까지도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박수영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 제16조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후보자도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이 부분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작년 본인이 얘기할 때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과거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세청장으로서의 역량 검증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 후보자는 조사국장만 본청과 서울청, 경기청에서 여섯 번을 지냈습니다. 조사국 경력만으로도, 세무공무원 생활 절반에 가까운 12년을 조사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얼마나 공정하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휘둘렀는지 국세청장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꼭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 후보자와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따져 볼 수 있는 자료제출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법인 선택도 마찬가지로인데 방금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출도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동종 업계의 10배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어떤 세무 서비스를 했는지 매출 증빙도 내라 그랬는데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받은 건지, 국세청장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우려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후보자 사생활 파헤치고 망신 주자는 것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했는지, 공정했는지 또 퇴임한 후는 어땠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이 요청한 중인 신청을 무시하고 하나도 채택 안 해 줬고 후보자는 자료를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들이 국민의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니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의 자료제출 없이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 후보자의 조사국장 시절 업무수행 내역, 세무법인 선택 관련 자료들,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엄정히 후보자에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민주당, 자기소개 하시고……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끝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임광현 후보자 나와 있는데요. 자료들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실 만한 자료는 내셔야 되겠지요. 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무법인 선택 말씀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게 임광현 후보자 개인 회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임광현 후보자가 개인 회사, 자기 개인적인 거라면 당연히 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법인인데 임광현 후보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또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한테 여러 가지 다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막 출발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임광현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업무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런 내용은 충분히 질의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법인 선택에 관한 자료는 제가 볼 때 임광현 후보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나 깡통 청문회 그런 것은 꼭 맞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청문회가 특정인에 대한 망신 주기로 흘러가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을 책임질 그런 능력과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관예우 그리고 이해충돌,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이 부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겠지요.

저도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후보자가 설립하고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의 재직기간 동안의 10대 그룹 지주회사 및 계열사 등과의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후보자의 세무사 자격증 유무와 취득 일자를 요청했습니다. 금방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교부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료제출부터 매우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후보자가 적절한 후보자인지, 국세행정을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 회사가 아니라서, 또는 본인의 지분이 지금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답변 아닌가요?

위원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혹시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의사진행의 과정에서 질의시간에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와 회사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오면서 과거에는 후보자의 자녀들 아니면 직계존비속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출하던 시기에서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그런 틀 내에서 제한되고 조정이 되면서 바뀌어 왔던 과정이 인사청문회 과정으로 정착이 된 사안이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와 법적으로 현재 가능한 여부 그리고 각 회사의 거래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은 요청이라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런 것은 좀 과하게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제안이 되고 신고되고 또 각 의원실로 여러 가지 제보가 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인사청문 과정의 판단과 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직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도 여러 번 했는데 개인이 제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개인정보나 그 여타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됐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후보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안 한다는 것이 용납됐다는 규정은 지금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증언감정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사나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국가기관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증언감정법 2조·4조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법문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10년 이상의 조사국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 2년 만에 1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급성장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과연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을 때의 상황 그리고 근무했을 때 세무조사한 기업에 대한 고문을 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해충돌 여부, 전관예우 문제가 반드시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무법인 선택의 회계연도별 재무제표 그리고 고문 수입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재직 당시 세무조사한 실적 내역, 전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법인의 재무정보나 후보자의 실적이 타인의 납세정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히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야당이 됐을 때는 이 인사청문회법·증언감정법을 가지고 고발까지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반대하시는 이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이 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아니고 전관예우의 문제 또 이해충돌의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엄중히 경고하시고 당사자에게도 이 자료제출을 반드시 오전 중에 내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 진성준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끝나고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낼 수 있는 자료를 일부러 내지 않는 것은 청문을 받을 후보자의 자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판단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료제출의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외교·대북 관계에서의 국가기밀이 아닌 경우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 국민, 일반 기업 이들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법조문을 정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물론 후보자가 해당 세무법인의 대표로 있었고 또 거기에 적을 뒀기 때문에 세무법인의 협조를 얻어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내되 그것이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와 세무법인과 거래 계약을 맺었던 다른 의뢰인들의 비밀을 해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존중되어야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직접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무슨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거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지 법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 법문에 어긋나게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된다. 안 내면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 권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임광현 후보자가 자료제출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보통한 60%는 넘어야 되는데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료제출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줘야지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진 위원님 삼성전자 예를 들었는데 삼성전자 예야 그러겠지요. 그런데 지금 세무법인 선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비로소 수임들이 적절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검토할 텐데 본인과 관련된 이런 자료까지 다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오전 중이라도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오기형 위원 오기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고 논쟁의 영역이고 정치 공간에서 이야기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가 설명을 해 줘야 될 내용, 이후 아마 질의응답 때 설명을

해 줘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싶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2023년도 택스위치에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약 7억 얼마 나오더라고요. 개인 세무사가 1인당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얼마 나와서 이른바 세무법인 선택에서의 평균, 전문가 기준에서 얼마인지 그 자료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는 한번 서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오기형 위원 예, 그건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1분 발언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신상발언하시면서 의사진행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방금 요청드린 자료는 후보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모든 게 국세청에 보관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 세 가지 자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법에는 분명히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각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만일 거부한 주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거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같은 이야기가 너무 반복돼서 그냥 꼭 참고 있었습시다라는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법인의 세무정보 중 공개 대상이 있고 공개가 제외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입법사항들,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실 테고……

그러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포함된 세무정보,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인사청문회라 하더라도,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자료제출 비율이 낮다고 얘기를 해서야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시지요.

그리고 법령상 보장된 것에 근거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인사청문회에 돌입하는 게, 국민들이 지금 생방송이라며 이 시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같은 말로 반복하면서 시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주 부적절하신 말씀이에요.

○위원장 임이자 다음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세무법인 선택의 회계연도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관련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지금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청이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항이 비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조선일보나 필드뉴스를 통해서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영업이익이 56.5억, 자본금이 27배가 폭증했다는 재무정보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그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업 9개월 만에 매출 45억 4000만 원, 영업이익이 24억 6100만 원, 2024년 6월에는 연 매출 63억 4000만 원, 영업이익 31억 8400만 원.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설립 당시 2억 원이던 자본금이 55억 3900만 원으로 27배 폭증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공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공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건지 또 이 내용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다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 여야 간사 협의해 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더 하시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인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금 개인정보관리위원회에서도 예전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내역이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이미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들에 대해 가지고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2023년에 민주당 과방위원들께서 자료 왜 안 내냐라고 고발하셨을 때 그때 민간 학교인 하나고등학교 같은 데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저희가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나 어마어마한 비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세무법인 대표 하시던 분이 나와서, 게다가 그분이 그냥 일반적인 분도 아니고 국세청 차장 하다가 그만두시고 두 달 만에 세무법인이 이렇게 급성장했다 그러면 이 정도 자료는 당연히 받아서 봐야지요. 이걸 안 보면 저희가 청문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 필요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 저희 꼭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예.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유상범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위원을 얘기하면서 자료제출을, 개인정보법에 이렇게 규명한 부분에 대한 취지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고 제출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요청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고 원할하게 진행을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국회 운영을 해 오다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되지 않았던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이거는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해서 개인정보에서 후보자가 아닌 경우,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학력의 사항, 성적의 사항, 여타 부분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지만 그것이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의한 경우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전에 국세청장후보자라든지 많은 분들 청문회 해 왔던 예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후보자의 소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이후에 그게 부족하다면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법인도 그게 개인의 회사가 아니고, 현재는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표였지. 그러면 현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의 객관적인 자료는 다 보고가 됐지요, 공개가 됐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다 제출이 돼서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내에서, 그 회사의 거래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회사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서 받았던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과정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충분히 하고 질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취지와 내용을 좀 곡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봐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의사진행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말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그 리더의 कै과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세청장의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저는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청문회가 원할히 잘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청문회에 후보자께서는 국회를 존중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통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맹서한 만큼 국회의 검증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청문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청문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

료가 374건이나 미제출되었고 그 가운데서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여 미제출된 자료도 91건이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고 국회 관계법과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간의 충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양당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사말씀하셨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특히 사정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을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누구보다 더 필요하고 도덕적 검증은 더 엄중한 잣대로 봐야 될 것이라고 또 본 위원장도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국세청장의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기 국회에서 승인 요건은 필요치가 않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을 때 우리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맹탕 국회 청문회가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께서 강행적으로 처리하는 국세청장, 그 밑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후보자께서…… 지금 천하람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그리고 오기형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박대출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서 꼭 오전 중으로 제출하실 것들은 제출하시고 그게 용이치 않으실 때는 늦어도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출 불가능한 자료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오전 중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 개인정보를 국회가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공적 이익이 후보자의 어떤 사적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히 사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도 더 크고 또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관심도 아마 크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진솔하게 해 주셔서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될 수 있는 국세청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자료제출 관련된 공방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법률에 법인의 경영활동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는, 아까 하나고 예를 드시던데 그런 것은 한번 따져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 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저는 진짜 후보자가 전관예우 받아 가지고 수십억, 때론 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2022년·2023년 연매출 45.4 그리고 2023년·2024년 연매출 63.4, 그래서 본인이 받아간 게 19개월 동안 2억 3000, 월평균 1200만 원, 우리 국회의원 월급만큼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혼자 다 한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동안 세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성 쌓은 회계사·세무사 20명의 전문가가 함께 만든 회사예요. 왜 이것은 다 생략하고 혼자 마치 국장 마치고 나서, 차장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매출을 다 올린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질문들은 이따 또 있을 테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최초로 국세청장에 임명됐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국세청장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있었는데 새 정부가 어렵게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 세정 행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했고 본인도 국회의원의 직을 버리고 세무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고 결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1년 넘게 동료 의원으로서 곁에서 지켜봤을 때 이 분야의 전문성, 소명의식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세·세정 분야 최고전문가로서의 역량 또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또 책임감과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 잘할 자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정치적인 세무조사 또는 표적 세무조사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와 의혹 제기도 있다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언론에 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MBC, KBS, YTN 또는 입시학원들, 일타강사 그리고 쌍방울 또 성남FC와 관련된, 네이버 등 전방위적인 기획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듯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때도 저희가 지적한 게 서울청 조사4국이 수백 명을 동원해서 방금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을 세무조사했는데 관할청이 아닌 소위 교차 세무조사, 관할 조정 방식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교차조사 등이 필요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은 예외

적인 경우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세 본연의 목적으로 최대한 절제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1%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0.2%. 그런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 가까운 세수결손 발생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홍근 위원 세수 기반의 확충도 중요한데 정확한 세수 파악 노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2차 추경이 있었는데 올해 세수결손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도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올해 세수 예측은 10월이나 하반기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세 신고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마찰이 좀 있어서 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 말씀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통상마찰 등으로 부진할 걸로 보여지는데 한 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봤더니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서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만 최소 9조 6000억 세금이 덜 걷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법인세가 한 3조 5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대기업 감세 규모만 62%에 해당하는 2조 1600억 규모다 이렇게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당시에 세제실에서도 감세정책을 하면서 세수 감소 효과를 분석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세율 인하하면 연 5조 정도 감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세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국세청장을 수락한 이유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조세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수추계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이어서, 조세정책까지 관장하는 기관은 아닙니까 다만 다만 세금 신고 상황이라든가 세수 실적 등을 활용한 세수 추이를 개략적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세수추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국세청이 참여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면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저는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고 방안이 있습니까?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기재부에서는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해서 세수를 예측하고 있고 저희 국세청은 현장의 세입 여건 같은 것을 설명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 세목별 또는 월별 징수 실적이나 통계자료 이런 부분들을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신 걸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차규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가 될 정도로 재정 기반이 많이 취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세원 발굴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또 하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리랜서는 고용돼 있지 않으니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동안에는 지난해 소득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까 지난해에는 소득이 높았어도 올해는 한 톨도 없을 수가 있겠지요. 프리랜서들은 본인한테 일거리를 줬던 사업장을 찾아가서 해촉증명서를 끊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면서 관계가 좋지 않은 때도 있고 또 사업자가 폐업한 때도 있어 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공단 일선 직원들도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지요. 건강보험공단 처지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를 내면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0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소득을 알면 그만큼 보험료가 들어왔을 텐데 보험료 수입에 그만큼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를 구축했고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에 실시간 소득과약 전담 조직을 신설한 게 바로 후보자님이 차장으로 근무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위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들 소득자료가 매월 780만 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21년도와 비교해 보면 소득과약 건수가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또 인적용역 중에 기타소득자도 지난해보다 소득이 과약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소득 대부분이 과약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맞추어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역시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고 내후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상용근로자 소득까지 실시간으로 과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한 차례 시행이 미루어졌는데요. 예정대로 시행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7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보험제도를 고용에서 소득 기반으로 바꾸는 혁명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이 되시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편 일각에서는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가 추가로 과세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소득과약은 추가로 과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국세청이 나서서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편으로 국민은 여전히 국세청을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국세청은 이미 EITC 등 복지행정도 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따라서 국세청장이 되시면 국세청이 국민 삶을 책임지는 확실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 소득신고는 월별로 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많고 영세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신고 방식보다는 월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소득 과약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가기관 중에 국세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 과약을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행정 측면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서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자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용근로자까지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매월 하게 되면 그분들

은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전 국민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체계를 만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보험제도의 혁명적 변화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 처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을 이재명 정부가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그 기반을 놓는 일을 전에 차장으로 근무하실 때 시작하셨고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그 마무리를 하고 다시 도약하는 과제를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추가로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스프레, 뭘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요즘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스프레드에 관련되는 수입이 최근 5년새 약 2.6배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 배포한 이후 시점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스프레드 관련한 제도개선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올해 2월 달에 스프레드 24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에 웨딩 갑질 근절, 깜깜이 스프레드 견적 투명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거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국세청도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탈루 행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스프레드 쪽에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정보를 수집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전수조사는 또 일부 성실한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자칫하면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 선별을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엄정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제가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동료 공무원으로서 또 동료 위

원으로서 후보자의 국세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다만 제가 국민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관해서 여쭙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청문회가 우리 공직사회, 특히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앞에서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에 대표로서 세무법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세무법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법인이 1년 9개월간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법인 자본금은 동 기간 27배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개업 9개월 만에 매출이 45억이 늘어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만한 일인데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본금도 찾아 보니까 설립 당시에는 2억 원이었고 지난해 6월에는 55억 3900만 원까지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세무법인 선택은 후보자께서 대표로 근무를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설립은 누가 한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설립에 대해서 제가 설립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여 제안을 받았고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출 부분은 저 말고 다른 구성원분들은 이미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나 아니면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세무사들로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까 그 매출이 합계가 되다 보니까 나온 숫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고액 매출이 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매출의 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제가 한 1년……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신설법인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대표로 근무를 하셨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거기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을 했고요. 주로 구성원들에 대한 조언을 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혹시 그 세무법인 지분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이미 자료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설립할 때 한 주를 보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한 주를 보유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그냥 단순한 참여 정도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단순 참여라는 본인의 말과 달리 당시에 2년 전 후보자의 개업 사실을 알리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7일부터 세무법인 선택 개업’, ‘세무법인 선택으로 새 출발’, ‘전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 스타트’ 이런 식으로 개업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법인의 급성장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보시기에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신문기사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퇴직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을 해서 지냈고 그다음에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전관특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벗어난 21개월 간의 100억 매출은 누가 보더라도 후보자의 국세청 차장 이력을 고려한, 이용한 전관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안대희 대법관이 전관예우로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 수입료가 얼마였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당시 실 수입료가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매출 100억이 넘는 이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국민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세무사나 변호사 등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과거 직전 3년간의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0건이지요? 수입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제 개인적으로 사외이사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월 평균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00만 원의 급여는 자문도 하지 않고 수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부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에 참여하거나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는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후보자께서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전관특혜 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관예우란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특권과 반칙이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시고 또 정식으로 국세청장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의 전관예우와 관련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님의 우려 겸허히 새겨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마이크를 바짝 당겨 가지고 얘기 좀 하십시오. 여기까지 잘 안 들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무법인 선택 관련해 가지고 전관예우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전관예우가 작용을 해서 선택이라는 법인이 과도하게 매출을 올렸다,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그랬는지 한번 보시지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무법인 선택, 임 후보께서 근무하신 기간 동안을 둘로 나눠 봤어요, 첫째 두 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억 3000, 3억 2000 정도 됩니다, 1인당 평균. 그런데 동 기간, 유사한 기간 동안에 상장기업 1인당 매출액이 10억이예요. 그리고 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데요. 개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3억 5000, 법인의 경우 세무사 한 분당 7억 5000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액을 보면 통상의 평균적인 개인 세무사가 벌어들이는 매출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보면 전관예우가 작용을 했다고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의혹이 사실과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책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께서 정치적 세무조사 말씀 주셨지요? 국세청장후보께서는 여섯 번의 조사통 그리고 특히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도 하셨어요. 이 분야의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무조사의 위력과 잘못된 조사의 폐해를

잘 알고 계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윤 정부 때 상당히 의혹이 컸습니다. 정부에 비판을 한 방송사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파다했습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그다음 날 표적조사가 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정부 정책에 옳지 않다 반기를 지닌 집단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도 이게 또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서 임광현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정치적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행정의 신뢰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텍스워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5점 만점에 3.21이에요. 국세행정 7개 항목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이게 지금 국세청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 정부의 일탈된 이러한 세무조사 사례가 낳은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우리 국민주권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반드시 단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수 확보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윤 정부 때 세수가 크게 붕괴됐지요. 조세부담률이 작년 17.6%, 8년 전으로 퇴행을 했고 지난 정부 때 발생했거나 확정된 세수결손이 97.5조에 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지난 정부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돼 있고 또 84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부자감세 조치의 후유증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탬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세무행정이 다소 느슨해졌더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가 결손되고 정상적인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정 당국에서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채납 환수 노력이지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채납자 그리고 1인당 걷지 못한 채납액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평균 83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세채납액에 대해서 징수 노력을 가속화했어야 되는데 2024년에 보면 30.1%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38.8%에 크게 미달할뿐더러 심지어는 코로나 위기 때에 비해서도 지금 8%p 정도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합당한 노력을 등한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세수가 어렵고 또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수행정에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후보님의 복안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국세청 세수에서 자납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로서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세행정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인 체납자라든지 탈세자에 대해서 누락된 세금을 거두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도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이신데요. 오기형 위원님, 아까 자료제출 요청하셨던 게 지금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따로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오기형 위원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잠깐만요.

○오기형 위원 아, 유상범 위원님이신가요?

○위원장 임이자 죄송합니다. 유상범 위원님이십니다.

유상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낙석된 줄 알았습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강원·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행정에서 정치적 세무조사의 폐해나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최초로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는 이런 사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활동을 경험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공감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공감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보니까 2024년 2월 16일 날 민주당에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리고 3월 18일에 비례대표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민주당은 언제 입당하셨습니까? 2024년 초에 입당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재 영입 직전에 입당을 하신 거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입당의 계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마 조세 전문가로서 여러 분들을 통해서 추천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추천이 됐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고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개별적으로 인척관계라는 확인이 됐어요. 어떤 관계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처남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두 분이 처남·매부 지간이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승엽 변호사가 인재 영입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워낙 가깝게,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관 후보군까지 포함될 정도면 후보자에게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세 전문가로서, 제가 추천한 분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이 됐다고 들었고 또……

○유상범 위원 본인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본인도 적극 참여를 요청을 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요청하지는 않고……

○유상범 위원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요청을 받아서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상범 위원 이승엽 후보자가 사실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를 또 주요 보직에 앉히냐는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관 후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후보자께서 국세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너무 공교롭잖아요. 한 분이 포기하니까 한 분은 또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되고, 이거야말로 굉장히 보은 인사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후보자에 대해서 국세청장으로서 만일 조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더 부각이 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저의 전문성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후보자는 서울국세청장으로 재직을 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상직 당시 오너에 대해서 탈세 제보를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렇게까지, 4월 28일 날 국세청 앞 기자회견도 하셨고. 이 내용 다 기억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못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상범 위원 2020년 7월 30일, 2021년 4월 28일, 10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나 제보를 합니다. 그 기간에 서울청장으로 계셨고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결국은 2023년 4월에 대법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죄로 유죄 확정을 받습니다.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2021년 4월경인가 그즈음에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 조사 착수 불가 답변을 합니다. 국세기본법 81조의6 3항 4호에 보면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3호에서는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이 거부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까요? 적어도 서울청장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국세청장의 결정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세무조사를 조사 착수 불가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많은 탈세 제보 업무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세 제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이 명백……

○유상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대법원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죄로 유죄 판결이 난 정도의 사람이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장 재직 중에 이것을 조사 착수 불가 답변을 하세요. 조사를 안 한 거예요, 대법에서 유죄 판결이 난 큰 사건을.

이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당시 청장으로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니요, 그런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유상범 위원 아니,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탈세 제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업무 메커니즘상 실무자가 가장 중요한 키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상범 위원 좋은데,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 옆에 배석해 있는데 이 당시에 결정할 때 결정 주체가 누군지 자료 낼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건을 실무자가 그냥 해요? 워낙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 문제는. 그것을 실무자가 결정하고 청장은 몰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마 이 탈세 제보의 최종 처리의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보시면, 그걸로 유추를 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중요 사건의 문서 결재는 과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요한 사건을 최소한 서울청장까지 보고 안 하고 그냥 뭉갠다? 이것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지요. 이것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스타항공 노조 사건은 아주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사건이고 노조원들의 피눈물을 짜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탈세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착수 불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누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오후 3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스타항공 세무조사 문제가 임광현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것을……

○위원장 임이자 임광현 후보님이 서울청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고 아무 문제 없으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발끈하실 필요 없어요.

자,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발끈하는 게 아니고요.

○박홍근 위원 개별 사건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도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 앞뒤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서류로 요청했던 건데 다시 한번 팩트로, 구두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법인 선택에 전체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퇴직 이후에는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고……

○오기형 위원 아니, 그 당시에 대략, 대략.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있을 때는 회계사, 세무사 해서 10명 정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 10여 명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하시고 또 당당하게 해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텍스워치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텍스워치라는 인터넷신문사인데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3년 기준으로 약 7억 5252만 원 되더라고요. 개인 세무사의 경우는 1인당 평균 매출이 3억 4804만 원 정도 된다고, 올해 25년 2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지금도 떠 있고요. 제가 지금 띄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균 이상이나 아니냐가 실제 전관예우에 대한 논쟁이 될 영역이어서 좀 자료를, 그런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인데……

세무조사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종래부터 계속 국정감사 때부터 제기했던 의제인데 이후에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일하신다면 이런 것 좀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른바 합병 등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받게 되면 그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이익을 받게 되고 그 이익이 3억 이상이 되면 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 과세해야 됩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상증세법 38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까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주 충실의무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사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었고 합병 비율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특정 주주는 이득을 봤고 일반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이런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검토해 봤는가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두 번째 사례 보시지요.

SK 같은 경우는 최근에 KBS나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V프로젝트 이러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SK 실제 고발도 됐었고요.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현장실사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검찰 고발 상태입니다, KBS 보도도 있었고.

이 경우에 초점은 뭐냐 하면 SK C&C와 주식회사 SK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하면서 합병 비율이 적절했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세무 탈루 이슈는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합병 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정 주주에게 만약에 이익이 갔다면 증여세가 있고요. 그 이익의 미니멈 기준이 3억인가, 아마 그 기준 넘어가면 증여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요.

세 번째, 호반건설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국감 과정에서 제가 계속 이 의제 주장을 했던 거고 이 경우도 똑같이 합병의 문제입니다, 합병 비율. 아들 회사와 아버지 회사가 합병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2조 5000억인가 상당히 많은 부자가 됐지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때 저희들 증인 채택했다가 증인 끝내 안 나왔지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 터널링, 일감몰아주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에 따른 부당이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경우라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되고 지금 공정위 논쟁 중이고 그때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흔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국세청이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 국세청장한테도 이걸 물어봤었고 여전히 이 지점에 대해서 신임 국세청장 되시는 분도 이 의지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증여의제에 대한 제척기간입니다. 1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현행 조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건은 다 제척기간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기 내내 아마 이 제척기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야 된다. 증여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그리고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면 기준금액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그리고 기준금액이 넘었다면 과세해야 되는데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계속 질문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대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강조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주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억 손해 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SK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실은 그 합병 비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제 거의 빵점, 낙제점 그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일반 고액

채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액·상습 채납자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고액 채납자 전체가 약 100조가 넘어요. 그리고 고액·상습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하십시오.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기형 위원 시간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질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저희가 의문인 것은 또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징수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 또는 실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액 채납자가 있고, 상습·고액 채납자의 경우에는 규모가 좀 더 있는 거지요.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1년 이상 연체돼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습·고액 채납자의 경우에도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상습액 자체가 한 해에 증가된 것만 해도 한 6조 되는 거였어요, 작년 한 해. 그러면 적어도 상습·고액 채납자에 대해서 그 규모도 상당히, 5000억이나 2억인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다음 페이지, 채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체는 전체 징수비율이 약 10%도 못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에서 징수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일단 답변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채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트랙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채납자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면밀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분류를 해서 생계형, 정말 무재산 채납자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액의 악의적인 채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닉재산을 찾아서 끝까지 그것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면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악의적인 채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서 추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임광현 후보자님, 맞은 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후보자가 되셔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축하드리기 전에 지금 후보자 청문회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는 조금 실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냐 하면 지금까지 진보정권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다양한 규제정책을 도입했지만 결국 고위공직자들은 오히려 강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기성 거래를 하거나, 어쨌든 그런 정책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에서 미리 조용히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버틴 공직자들은 부자가 되고 서민은 기회를 빼앗기고 사다리를 걷어차였다 하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지금 보니까 실거주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용 거래를 한 적이 있냐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본인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이인선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니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 부부는 2004년도 송파구에 있는 빌라 한 채를 1억 8000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사전에 답변을 하셨고 지금 거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정비구역이 되면서 3억 4000 분담금을 내고 분양을 받으셨고 2024년 8월에 준공허가가 나면서 지금 임대차계약을 써서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지금 현재 17억 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을 더 들여다보니까 후보자 가족은 이것 외에도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임차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21년 동안 한 번도 살지 않고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했다는 해명은 과연 어느 국민이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직을 하던 2020년경에 그때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의 참모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다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직접 명령을 내렸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결국은 강남 아파트는 팔지 않고 지역구인 청주의 집을 팔아서 외부 사람들은 푹푹한 한 채를 챙겼다 하고 본인은 집이 매매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도 보면 송파구의 빌라나 은평뉴타운 아파트, 배우자가 상속받은 오피스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집을 팔면서 송파구만 남기고 다른 건 다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명령했지만 중요한 건 시세차익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청주가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판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색한 변명인지, 집값 상승의 유혹 때문에 못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해지셔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구윤철 장관 후보도 개포동에 재건축, 임광현 후보자도 송파에 재건축, 어제 했던 강선우 여가부장관도 은마아파트, 이렇게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의

행정부 각료들이 다들 강남에 뿔뿔한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주권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청년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강남 부동산 재테크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 봐야…… 집을 갖고 싶은 서민들은 대출을 옥죄면 결국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제 해명을 좀 드리면……

○이인선 위원 예, 간단하게 해명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송파구 빌라는 저희가 무주택인 상태에서 거주 목적으로 샀던 건데 그때 애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전학을 갈 거냐 말 거냐 많이 논의를 하다가 전학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를 못 갔고요. 그 이후에 거기가 재건축이 됐는데 저희가 25평을 분양을 받은 게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여기에 살자, 애들 다 출가하면’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저희가 살 것이고요.

은평구 주택은 저희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때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거주했던 집을 팔았던 겁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시세 차익이 있었고 뿔뿔한 한 채를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차장 할 때하고 국세청장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차장은 청문회가 없었고 청장은 지금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되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선택 또 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강남 아파트를 선택했지만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최소한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은데 그 염려가 그야말로 무색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느끼고 공직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차장일 때는 나와서 선택이라는 세무법인을 했지만 청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리인 것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저도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저는 후

보자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후보자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내로남불이고 모순이에요. 윤석열 정부 때 너무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많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을 국세청장에 임명하겠다는. 이 자체로 모순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물론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조심을 할 거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천하람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정권이 바뀌어서 개혁신당이 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국세청 출신의 의원을 얼마든지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그 어떤 우려도 없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건 개인의 의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 의지를……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자님은 좋은 의지를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한번 열리게 되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런 선례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장을 해 보면 일선 기업에서 검찰보다 국세청이 더 무섭다, 세무조사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지요.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국세청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 활동, 기업과 개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 사실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4대 권력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정치인 출신 청장을 안 썼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계속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권력기관에도 정치인 출신 임명하겠다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뀐다고 했을 때 검찰총장에…… 그냥 예시입니다. 권성동 의원을 검찰총장에 임명하겠다 내지는 이철규 의원을 경찰청장에 임명하겠다, 그것 못 막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권력기관장을 이미 정치인 출신 임명한 적 있지 않냐?

이런 판도라의 문을 과연 지금 여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로 가면 갈수록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관행을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천 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 초년생이지만 와서 정치를 보니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가서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납세행정을, 국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 저도 임광현 후보자의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선례는 쌓이는 거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많은 여당의 위원님들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야가 바뀌고 했다는 게 참 제가 실감이 나는 게 자료제출 이런 것부터도 사실 다 내로남불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의원 생활 하실 때 자료제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고요.

아까 민간 기업에 대해서, 세무법인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냐 논쟁이 됐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법 12조만 보더라도 국가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 즉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은 제가……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위원회의 정식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민간 기관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존에 고발 조치까지 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 참조하셔서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와 또 국세청 직원분들도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기업의 비밀, 개인정보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이것도 내로남불인 게 조금만 우리가 시계를 약간, 몇 달만 돌리면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증언감정법 고쳐 가지고 국감 아날 때도 기업인들 부르고 기업 자료 다 받아 볼 수 있는 증언감정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돼 가지고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기업들 자료 다 받아 보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여당 되시니까 우리 후보자 자료는 못 내겠다, 우리 후보자와 관련한 민간 자료는 못 내겠다. 저는 이거 내로남불이다,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셨으면 제가 이런 걸 확인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자꾸 전문가들 20명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까 후보자께서 10명이라고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전관예우를 의심하면서 보면 지금 본점이 있고 서초점, 안양점, 일산점, 홍성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무법인 선택에?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다 파악을 하고서……

○**천하람 위원** 대표 하셨을 때의 지점인데, 다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본점이랑 지점들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본점 매출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이런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요. 개략적으로라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만 제가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공직자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규정을 지키면서 했었고요.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받았던 것은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다입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법인에 아직 까지 남아 있는 돈도 수십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흥성점이 혹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 대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개별 결산도 할 때 대표가 다 도장도 찍으셔야 될 건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통상 국세청에서 간부로 퇴직을 하면 3년간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가지를 못합니다.

○천하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래서 보통 작은 세무법인의 회장이나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3년이 지나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천하람 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세무사가 몇 명이고 개별 평균 얼마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본점의 매출이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거나 하는 사정들이 있다면 결국 그게 전관예우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후보자가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쳤는지 또 다른 지점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것 다음 질의 전에 챙겨서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임광현 후보자님, 우선 지명되신 것을 축하는 드리지만 상당히 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평소에 국세행정을 하면서 가장 기업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투명한 기업 경영.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께서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임광현 후보자 본인의 투명성에, 상당히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국세청장이 된다고 한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데 국세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세행정이 결코 정치 권력의 칼로 악용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

인 소신도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국회의원으로서는 기재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도, 제가 역대 청장들 인사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 쪽 볼 때,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우선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우려를 겸허하게 새겨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앞서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이스타항공에 대한 그 부분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을 찾아보면 그러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청이 묵살했는데……

아까 전결 규정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재 결정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중대한 사항을 그 당시에 서울청장으로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고 또한 묵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전결 규정을 들먹이면서 하급자들이 그걸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내가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은데요, 좀 당당하게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말, 2018년도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때는 당시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그 다스에 대해서 서울청이 관할 범위도 아닌데 경상북도까지 내려와서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임광현 당시 서울청 조사4국장이 40여 명의 조사관들을 데리고 진두지휘를 한 적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과세정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스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 당시에 4국에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2018년도에 한 일이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윤영석 위원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거기에 정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말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역대 정권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이러한 국세행정이 권력의 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

서 여러 차례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정치적인 중립성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국세행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윤영석 위원 그래서 국세행정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오랜 국세행정을 해 오셨고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지명을 받은 후보자 입장에서 향후에 이러한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 한번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결국은 조사 대상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요건과 절차를 확고하게 지키고 가능하면 저희가 AI를 갖다가 국세행정에 한번 접목을 시켜 보려고 그러는데요. AI에 의해서 탈루 혐의가 높은 대상자가 기계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어떤 조사 대상 선정의 자의성 문제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외국에서는 지금 AI를 도입해서 랜덤 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선정부터 그 결과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런 데 대한 감시나 견제가 없고 외부 기관에서 이것을 견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감시하기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외부의 독립기관에서, 국회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외부의 독립기관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오남용 또 악용이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청장이 된다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잘 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 옆의 옆 자리인데 거기 앉아 계시니까 다소 어색하기는 한데, 아무튼 국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궁금해해요.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왜 국세청장으로 가셨을까?’

국민들께 국세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세행정이 점차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출생·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성장시대에서 국가의 복지 재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되면서 세원 포착의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될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다해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인사말씀에 AI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후보자 청문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도덕성이랄까 어떤 면에서 개인의 신상, 두 번째는 업무 능력, 과연 국세청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국민들께 보여 주실 수 있는 전문성, 조직의 리더십을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개인적인 도덕성,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세무법인 선택이라는 법인 관련해서 자료 요구나 질의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한 19개월 정도 계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매달 월급 받으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한 12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12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그렇게, 물론 일반 국민들 수준, 생각에서는 적지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세무법인의 대표로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그분이 4~5년 동안 월 4000만 원, 거의 한 20억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비교도 안 되는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기에 직원이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600만 원밖에 안 났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잘 모르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퇴직한 이후라서……

○정일영 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세무법인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도덕성, 신상에 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능력 면에서는 국세청에서 거의 엘리트 코스로,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엘리트 코스로 하버드대학도 갔고, 공부하고 오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국세청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국장만 여섯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가 궁금한 것은 국세청 차장도 하시고 서울청장도 하시고 이런 요직, 중요한 자리를 하시면서 굉장히 잘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특별세무조사 이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일영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민원이라든지 고발·진정 이런 걸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특별히 잡음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일영 위원 제가 듣기에도 없어요. 그만큼 국세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아주 리더십을 갖고 잘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무튼 국세청장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특별세무조사, 세무조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에서 제일 겁내는 것도 세무조사고 국세청이 정치권의 칼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전에 강민수 청장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9개의 칼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서울지방청장 할 때 YTN, MBC, KBS, 카카오, 대우건설, 일타강사 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면 바로 세무조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지적했었거든요.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시면, 임명되시면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물론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특별세무조사도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세무조사는 최대한 절제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세수결손 문제인데요.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해 가지고 거의 90조, 100조 결손 났는데 올해도 세입경정해 가지고 10조로 바꿨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가면 세수결손 또 꽤 있겠지요.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세입경정까지 했기 때문에 가급적 하여튼……

○정일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에 국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고액 체납자들 체납된 세금이 제 기억에 한 100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국세청이 노력을 좀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일영 위원 많이 좀 받아야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 겸허하게 반성하고요. 체납세금 축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가상자산, 아까 오전 인사말씀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내역 이런 게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과세에 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준비는 다 돼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시스템은 다 준비를 해 뒀고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이 되면 그 자료가 국세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에서 시행하기에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바로야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 초라든지 상반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미뤘지만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징세가 가능하냐?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 놓고 있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AI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국세청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인건비라든지 큰 사업, 주요 어떤 큰 프로젝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행정적인 경비 이런 게 많은데 AI를 굉장히 많이 말씀, 인사말씀에 보면 상당한 양의 AI,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AI 아직은 안 따져 봤습니다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희는 한 1300억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국세청도 AI 전환을 하고 있는데 10조 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영국 국세청은 한 1조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정일영 위원 그건 잘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아무튼 직원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평불만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셔야 직원들이 국민들께 좋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를 좀 잘해 주시고요. 특별히 인사 원칙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국회의원을 하시고 국세청장을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국세청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직원들에 대한 인사, 아까 인사말씀에도 있었으니까 일하는 환경 개선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따라서 화합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 직원분들의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하위직 인사 적체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유상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탈세 제보가 있었는데 왜 세무조사 착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었고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했고 조사국장이 와서 소명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 계실 때 조사국장보고 소명하라 할까요, 아니면 지

금 들어와서 소명하라 할까요?

○박수영 위원 자료를……

○위원장 임이자 자료로?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 와서 소명했던 부분들을 문서화해서 주시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조사국장이 유상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문제 제기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여기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인상 깊은 대목이 AI 세정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 방안을 스스로 찾아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이 좋아할 것 같아요. 또 그간에 축적된 세무조사 사례를 전부 AI한테 학습시켜 가지고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데 1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 갖고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사실 미국이나 이쪽은 전산으로 축적돼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수동 자료를 전산으로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저희 대한민국 국세청은 이미 전산으로 자료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사실은 훨씬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리고 국가재정 상태만 좋으면 더 많은 GPU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진성준 위원 생성형 AI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왕에 개발되어서 상용되고 있는 외국의 AI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습시키는 각종 세무정보, 세무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전부 외국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외부망과 단절이 되어 있고요. 내부의 전산 전문가와 그다음에, 전산 전문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세법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이……

○진성준 위원 자체적인 세무 AI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완전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AI 시스템입니다, 국세청만의.

○진성준 위원 세무행정의 소비된 AI가 되겠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기대가 큼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정치인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치적인 세무행정 또 정치적인 공정성·중립성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그래서 국세청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후보자께서 인재 영입되었을 당시에든 국세청법을 제정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성·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국세청법이 국세행정 중립성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조직법을 다루고 있는 다른 부처의 또 다른 의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같이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성준 위원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세청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또 정치적 세무조사 이런 것에 휘말리느니 국세청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서 국세청의 독립기구화, 그래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다면 정부 내부의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무법인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2년 사이에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그러는데 단순히 법인의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관예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는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의 직원들이 예전에 우리 직원이었으니까 좀 잘 봐주자, 그러니까 국세청 내부에서 전임 국세청 직원을 우대해 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그런 것을 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해서 세무 컨설팅을 맡긴다거나 세무대리를 맡긴다거나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매출이 올랐다고 해서 그게 곧 전관예우의 증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실제로 국세청 내에 전관예우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나름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그런 걸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진성준 위원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세청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부당한 어떤 세무조사 압력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또 직권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무슨 전관예우니 정치적 세무조사니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동의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세무법인 선택을 운영하시면서, 대표로 계시면서 단독으로 수임한 사건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만 수임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후보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2년 동안 100억까지 오르는 데는 그 세무법인에 함께하고 있는 다른 임원이나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전관예우의 증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내에 전관예우의 관행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중의 하나가 국세청법의 제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정태호 간사님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고맙습니다.

우선은 국세청장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AI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AI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에 IT 강국의 기반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AI 강국이 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전자정부였습니다.

전자정부가 유엔에서 평가를 하면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늘 1등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AI 대전환기에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 AI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AI가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런 점에서 가장 국정 의 우선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부가 AI 정부로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께서 또 강하게 AI 국세행정 의지를 피력하고 계셔서 한 가지 좀 여쭙볼 게 있어서요.

우리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GPU 숫자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이쪽에서 만드는 그런 GPU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GPU가 없으니까 대규모, LLM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불가능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래도 GPU 64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GPU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뭐 기술 쪽까지는 깊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소위 생성형 AI에서 말하는……

○정태호 위원 그 GPU하고는 다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이상하게 숫자가 많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고,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최근 5년간 AI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요즘 AI 개념에 대해서 두 종류로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최근에 AI 전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그냥 입력된 자료를 화면이나 이런 데서 구현하는 정도를 AI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AI……

○정태호 위원 그러면 AI 예산으로 분류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국세청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AI고 현재 생성형 AI로 돼 있는 예산은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해서……

○정태호 위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공이 됐는데 낮은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다 퇴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명 가까이 남아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직의 보수가 그런 전산 분야 보수와 너무나 격차가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AI를 통한 전화상담 이런 것도 그야말로 AI,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대화형으로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하는 그런 식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사전에 입력해 놓은 시나리오를 그냥 읽어 주는 정도를 AI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태호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국세청은 AI 초보 단계도 못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신임 청장께서 취임을 하시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구체적인 AI 비전, 국세행정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통계들을 죽 인용을 해 봤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새롭게 이 AI 시대에 국세청이 그 중심에 꼭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세정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과 비교해서 2024년 국세청 세정지원 건수가, 건수로 치면 704만 4000건에서 128만 1000건으로 81.8% 감소해요. 지원금액은 32조 2976억에서 16조 5307억 원, 약 49%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엄청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할 정도였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도 세정지원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도 이 숫자를 보고서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는 국가적 위기라고 그래서 대대적인 세정지원을 과감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약간 조금 멈췄한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사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코로나 때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위기 상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정지원 확대를 대폭적으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인사말 중에 따뜻한 지원인가 그런 용어가 있어서 제가 되게 반가웠는데 이 실태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세정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은석 위원 먼저 후보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 아무래도 세무법인 선택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많은 의혹들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무법인 선택의 첫해 연도 매출액은 45억, 당기순이익은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도는 매출액 63억, 당기순이익이 28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시된 자료니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무법인 선택은 설립 2년도 안 돼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매출채권은 오히려 1억 3200에서 9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원 남짓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무법인은 조세불복이나 세무조사 대응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한 20~30% 정도 수준이 매출채권으로 남아 있는 게 일반적인데 선택은 어떻게 단기간에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선급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고정수입 기반의 계약 구조를 갖출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통상적인 시장경쟁 상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매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정수입 구조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나 가능한 방식입니다. 신규 설립된 세무법인,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이 같은 구조를 단기간에 갖춘 것을 보면 이른바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현금성 자산이 되게 급증합니다.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도 보시면 현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한 5배 가까이 폭증했지요. 둘을 합치면 1년 사이에 한 30억 정도 현금성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 숫자, 지금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통상적으로 세무법인은 이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하고 유보금은 최소화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무법인 선택은 거꾸로 막대한 이익을 통장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어 인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혹시 현재라도 명의신탁 등의 방식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실질주주는 아니신 거지요,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조세정의를 책임질 국세청장후보자에게 이런 전관예우나 명의신탁 또

불투명한 수익 분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 언젠가 공직을 그만두실 때 세무법인 선택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혹시 명확히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오늘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석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무법인 선택의 초기 매출이 높았던 것은 기존에 개인들이 영업했던 것을 법인 매출의 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고요, 저는 10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게 전부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매출 구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세무법인도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10월 세무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바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게 아마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3명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세무사가 공익법인의 회계감증 정산 확인 등 통상적인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또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님의 직무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택에서도 보셨듯이 불과 21개월 만에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한 이런 세무법인 또 향후 해당 법인이 후보자님과 또 후보자님이 향후 국세청장을 그만둔 이후에 여러 가지 업계나 본인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발의된 거라고 할지라도 내용 자체가 현직 국세청장후보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 이게 국민적인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후보자로서 공정성·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후보자가 발의하신 법안을 자진 철회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무사가 5명 이상

이 모여야 됩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무학과 교수가 이 법이 기존 세무사들에 의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이 돼서 젊은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설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2명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장애를, 하려고 이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최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오히려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 법안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최은석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자격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게 조금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은 완화하고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확대하는 것들 이거는 보면 법률 내용이 서로가 약간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다시 논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은석 위원 그리고 오늘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은석 위원 올해 들어서 일부 대기업이 소액주주와 자본시장을 무시한 일탈적인 경영 행태로 시장의 공분을 산 일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초대형 유상증자하고 태광산업의 자사주 EB 발행이 그건데요.

후보자님, 내용 한번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아니, 이거는 신문에 많이 났고 자본시장을 많이 흔들었던 건이라……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가 당적을 갖고 있던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세청장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후보자의 하여튼 남다른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법과 원칙, 공정성 또 형평성 이것에 입각해서 세무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걸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때 국세청의 매우 거친 세무행정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이 자리에서 비판을

한 적도 있어요. 예컨대 대통령의 킬러 문항, 사교육 카르텔 이런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총동원돼 가지고 막 들이닥쳐 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주 거칠게 세무조사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이렇게 거친 또는 맥락 없는 이런 세무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명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많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다 하셔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 기대가 아주 커요. 더더욱이나 외국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일로치면 우리 국적, 소버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세무행정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높이 사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현재 이걸로 분류될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지금 이게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거의 새로 시작하다시피 해야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고요. 그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계획은 갖춰져 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김태년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확보되면 바로 빠른 속도로 한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하여튼 기대가 큼니다. 이것만 잘해 봐도 큰 업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무사들은 싫어하겠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마 또 다른 전문성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이른바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27 부동산 금융 규제 대책을 발표했어요. 올 들어서 하도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져서 초고강도 금융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특히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이것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정책 당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세제와 관련한 또는 금융대책과 관련한 정책 당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세청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도 내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건데……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대출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됐어요. 이게 만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 만기를, 담보가 있으니까 만기를 막 연장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실제로 처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6억 원 한도가 걸려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한도가 안 걸려 있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도 동일하게 계약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이 6억 원 한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래야 이른바 재고 물량도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탈세 행위,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 이것도 아주 매의 눈으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예를 들면 지능적인 부동산 탈루 수법인데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다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주택 한 채를 허위 이전하고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세청에서 상당히 적발을 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대출 규제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고액의 현금을 보유한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례 이런 것도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해서 이런 탈루 행위,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탈루 행위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님 지적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거나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는 세금 문제가 꼭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이 됐든 또는 위축이 됐든 간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저희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AI 국세행정 전환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라든가 구글, 챗GPT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성형을 개발하겠다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국세청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 계획서를 한 4시까지는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줄 수 있는 거지요, 계획 단계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돼 있는 것은 바로 드리고요. 어쨌든 내용의 충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것은 추후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기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인사말 저도 다 체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청문회 때 자질·능력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 페이지도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세무사들이 좀 싫어하시겠네요’라고 말씀하신 것 있지요? 심각한 문제예요, 일자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또한 저도……

○김태년 위원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제가 지금 막 AI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제가 국세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문서인데요. AI 대전환으로 국세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미션 1 AI 기반 서비스 혁신, 그래서 홈택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미션 2는 AI 활용 공정과세를 하겠다. 세 번째, AI 적용 세정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도에 GPU 20장 정도를 구매하겠다, 27년도에는 GPU 700장 규모로 확충, 그러니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등등등 해서 소요 예산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 봤고. 현재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ISP,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기대효과에 이렇게 써 봤어요. 신고 오류 원천 차단을 통한 간접적 성실신고 유도 등등등등 업무 자율화를 통해서 등등등 해서 27년 이후 연간 10

조~20조 원 수준의 세수효과를 기대한다, 10조~20조 세수효과.

여기서 얘기하는 세수효과가 세입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어떤 겁니까? 10조~20조 세수효과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 때 우리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주 수혜계층은, 대기업이나 이쪽은 이미 세무대리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보다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분들이 주로 혜택,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수효과는 크게 두 측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나중에 가산세를 물거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놓친 부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성실신고 효과, 세수 증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탈세 적발률을 높여서 거기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추징하는 세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수효과를……

○조승래 위원 엄청납니다, 27년 이후에 10조~20조면. 제가 보기에 새로운 정부는 재정 문제 걱정 안 하고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 국세청 보고하는 과정에서 박수 치고 했다는 게 아마 이런 대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AI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 정보화전략계획이라는 것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SP는 전통적인, 소위 전산직 중심의 전략계획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은 ISP가 아니라 ASP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행정도 알고 AI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구축을 해야지 이게 시스템과 인프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보자께서도 그동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해서 관련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도 좀 있으셨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띄워 놓은 자료를 보면 신고자가 이렇게 돼 있고 환급세액이 1조 350억인데 실제로 370만 명으로 돼 있고…… 그동안 환급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135만 명 그제—한 5년간 누적이겠지요—1792억인데 국세청에서 이런저런 알림 보내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해 가지고 겨우 9만 명 110억을 환급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자기가 찾아갈 돈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찾아갈까, 뭐 때문에 안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사실은 인적용역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플랫폼 업체 등으로부터 당한 다음에 지급을 받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면 사실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같은 것을 제외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모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래서 이 부분은 세금을 많이 거둔 과세 당국이 찾아서 알아서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승래 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에서는 자기들이 287만 명에게 8170억을 환급해 줬다고 막 자랑을 해요, 민간 플랫폼에서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조승래 위원 그래서 이게 AI를 통해서, AI 세정 전환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급받아야 하나 받고 있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정부가 AI를 통해 서비스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따뜻한 세무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도 갖고 있는 계좌정보가 다 있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4대보험 가입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말고 건보공단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10조~20조 얘기했습니다만 세금 많이 걷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AI를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어 준다면 제가 보기에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AI라는 게 정말로 이렇게 효능감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 AI 국세청뿐만 아니라 AI 정부에 대한 효능감과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구체적인 것 먼저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단, 저는 그런 주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국세청 계실 때도 능력이 출중하시다고 널리 알려지셨고 또 국회에서 같이 일해 본 동료로서도 아주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국세청장으로 일하게 되면 임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통 예상을 하실 수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임기가 따로 없습니다. 통상……

○최기상 위원 보통 전임자를 보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보통 평균 2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일 잘하시면 5년 내내 하실 수도 있겠지요.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기억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기상 위원 그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부터 생각하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일 우리가 신문에서 읽을 내용이 아니라 2년 후에 달성할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행정의 문제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신문에 날 내용을 가지고 정치나 행정이 집중하고 있는데 가령 후보자께서 임기 2년을 시작하셨는데 2년 후에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를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해내겠다라고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추상적이나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모두발언에서 얼핏 조금씩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세청의 많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산화와 같은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AI 세무행정이 완성됐을 때 펼쳐질 모습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세무조사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한 50년 동안 기존에 해 왔던 부분 중에 과감하게 혁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된다면 바로 분야별로 TF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공개하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오늘 모두발언에서 보면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 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계획을 세워서서 현재와 2년 후에 어떤 결과와 차이를 내겠는지 말씀을 나중에 꼭 듣고 싶고요.

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현실적으로 매년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게 있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사실 우리가 그간에 국세청이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많이 했었는데 사실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어떤 증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예. 그리고 저도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얘기였습니다. 판사, 검사들이 제일 심하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나온 게 결국은, 대법관 청문회 하면 늘 물어보지요, 변호사 할 거냐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겠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안 하고요.

저는 국세청장이, 제가 국세청장이라면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국세청에 차장 등이 1급이잖아요, 1급이 몇 명 있고요 또 2급은 더 많겠지요. 3급도 꽤 있을 거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기상 위원 적어도 3급 이상자들은 ‘개업 안 하겠다, 세무사’라는 사람들만 승진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승진도 하고 나중에 돈도 벌고 이것 저는 납득할 만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지요. 나는 명예롭게 국세행정을 고위직까지 가서 해보겠다 이런 선택을 어느 사람은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고 세무사로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국민들께 봉사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문제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나중에 돈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행정공무원들도 끝나고 나면 로펌에 가 있다가 또 때 되면 국회에도 오고 정부에도 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큰데요.

저는 국세청도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 인재들이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4급, 3급 정도 수십 명 되는데 별 차이 없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본인의 염치 그리고 돈을 멀리하겠다는 그 자세를 저는 그 어떤 능력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한번쯤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위원님 말씀을 국세청 간부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세행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나도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는지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세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내게 하느냐가 국세행정의 큰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세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이나 의식이 충실하다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고 세무사들을 통해서 세금 안 내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국세행정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세금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지만 국가가 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불만을 가진 그런 성실 고액납세자가 계신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세력이 있고 여력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되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임광현 후보자님, 지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권영세 위원 국세청장은 임기가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통상 어느 정도 합니까? 한 2년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평균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선이 3년 뒤니까 총선 시기하고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세무법인 선택에는 안 돌아가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서면질의를 비슷하게 2개를 했어요. 임기를 마치신 다음에 세무법인 선택에 돌아가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하게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정치를 또 하겠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형식의 질문인데 ‘현재 후보자고 나중에, 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이건 돌아갈 생각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직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하여튼 오늘이 공직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부임도 안 한 분이지만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세무법인 선택에 안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분명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정치를 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지요. 문제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임 후보자가 정치인을 하다가 국세청장이 된 첫 케이스고 또 그런데 앞으로 다시 또 정치를 하게 될 생각이 있다면 정치적인 외풍에서부터 자유롭겠어요? 거꾸로 오히려 영합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 다음에 정치를 또 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하여튼 지금 이 자리가 공직의 마지막 자리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안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외풍이 문제지요. 국세청이 경찰청이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사정기관 중의 하나인데 이게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드시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스가 세무조사를 여러 차례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질문했는데 여기에 직접 관련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국장으로?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는 관련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직접적으로 관련한 적은 없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검찰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세청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작년에 강민수 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면 통상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미뤄야 하는 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보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2022년 5월 인가에 임 청장께서 들여다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요, 차장인가의 입장에서?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

○권영세 위원 좀 빨리 대답을 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0월하고 2019년 2월 정부와 유치원 간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었을 때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장관 간담회 혹은 관계부처 회의를 유은혜 당시 장관이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은혜 장관이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화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그때 봤습니다.

○권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수단으로서 세무조사를 이용해도…….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세무조사는 국세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좀 지켜 주시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서, 잘되길 바라지만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냐 하면, 2020년 4월 당시 도지사 시절에 배달의민족 배달료 꿈수 인상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공공연하게 세무조사 하겠다고 압박을 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니요.

○권영세 위원 2020년 5월, 한 달 뒤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 화폐 아닙니까? 지역화폐 차별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공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폐북을 통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하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의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광현 후보자, 만약에 이런 지시가 있으면 막아 내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지시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권영세 위원 또 이 대통령께서는 올해 7월 3일 날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직을 걸고 버틸 수가 있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하여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게 후보자의 트랙 레코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금투세에 대해서 후보자의 소신은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니까 그냥 따랐어요.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 당시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다르다고 끝까지 반대한 분들도 있었어요, 당론하고 달리. 당론에 따르고 안 따르고 어느 게 옳고 그르냐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큰 흐름에는 그냥 따라가는 게 여태까지 임광현 후보자의 성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버티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정치를 안 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 개미들을 위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제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7월인가요 그때 미국발 경기침체와 엔 캐리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9% 가까이 코스피가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정 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거는, 민심에 반하는 세금은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영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를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권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임광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경제정책을 같이 논의하던 동료 위원께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세청장으로 가셨길래, 국세청장이 차관급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우리 민주당 영입인재로 오셨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임광현 후보자님 뻘 때 민주당에 조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재위에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세청장으로 갔다. 그래서 평소에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나, 뭘 하고 싶었나, 그러니까 여기서 못 한 것을 국세청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나…… 뭐예요, 도대체? 청장 왜

하고 싶으세요? 지명을 왜 받아들이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솔직한 마음은 제 모두발언에서도 나타났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나를 그래도 현장을 많이 이해하고 행정을 한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봤던 것은 정말 이만한 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세행정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시각에서 발전을 시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세행정이 대전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에 한번 정말 제가 평생 몸담았던 직장인 국세청 그리고 국세행정에 대해서 한번 좀 헌신을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국세청에서 얼마 정도 근무하셨어요, 몇 년 정도?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한 28.5개월 정도, 28.5년.

○김영환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은 1년 하셨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비율로 따지면 국세청 맨이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물리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임광현 위원님과 같이 일하면서 정말 보고 배운 것도 많고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국회에서 좀 더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 통과한다면 그쪽에서 본인의 소신대로 적극 일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치적 중립 이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세무법인 다시 안 가겠다고 얘기했구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형 로펌이나 대형 세무법인들의 영업 매출이라는 게 수입료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곳들로부터 사실은 의뢰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이 사회의 특권층들이잖아요. 특권을 이루고 있는 분들인데, 주로 하는 그것들이 조세지출에 대한 얘기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건너 오고 심지어 국회까지 오는데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신 이런 분들은 저는 대형 로펌이나 대형 세무법인……

차라리 어려운 세무사들 1만 7000명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런 세무사들의 권익보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어요. 그런 데 바로 취업해서 그런 곳에서 도구로 쓰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세무사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힘써 주는 역할들을, 정말 최고위 과정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그런 데 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요. 그게 하나의 공직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세정의라는 게 몇 가지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조세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아까 다스 얘기도 나오던데 문제 있는 것, 부정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조세정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정의의 전제조건은 과세행정의 객관성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를 세무조사 많이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

아요. 그리고 과세 목적의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조세정의의 기본들이 좀 깔린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다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대법에서 17년 받았잖아요. 130억 벌금 냈잖아요. 58억 추징금 했잖아요. 이런 문제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세청 할 일이 아니다. 과세정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 중립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노태우 비자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세금 포탈한 제보서 강민수 청장한테 제출했는데 그것 국세청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김옥숙 메모, 900억이 넘는 새로운 메모가 나왔지요. 실기 한 번 했습니다. 2007년, 2008년. 그렇지요? 그때 임광현 위원님도 똑같이 질의하셨지요?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방치했다가 조세채권을 일실하게 되면 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김옥숙 여사 차명 보험계좌에서 210억 나왔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국세청에서 그때 한번 봤어요.

그리고 노재현 관련 동아시아문화센터 147억 그다음에 노태우센터 5억이잖아요. 이게 증여, 대여 혹은 상속. 21년 10월 26일, 날도 희한하네요. 10·26, 10월 26일 노태우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월급으로 얻은 재산은 아니잖아요.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국세청에서 엄밀하게 살펴보고 조세정의는 바로 이런 데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임광현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후보자를 볼 때 늘 잘 웃는 편이에요. 그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성실한 기업, 국민들에게도 잘 웃는 그런 세무행정을 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명심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물론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된다는 전제로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오늘 질의를 보면 말이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의도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관예우 문제, 또 하나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 그런데 전관예우 문제는 다시는 세무법인에 돌아가지 않겠다 해 갖

고 이거는 지금 있는 문제의 내용만 우리가 서로 파악하면 되는 내용인데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묻는 겁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가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라는 인사말도 했다, 그렇지요? 그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우리 위원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의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후보자는 그 의지를, 각오를 다지고 또 다지는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독립성 논란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동의합니다.

○박대출 위원 아마 모르는게 몰라도 세무조사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끊임없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다라는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특히 많은 겁니다. 왜? 후보자기 때문에 더 많을 거라고, 그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중하고 지혜로운 세무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먼저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세청장 후보가 됐다라는 데,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것도 최초지만 4대 사정기관으로서도 처음입니다.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국세청장을 4대 사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지금 처음이요. 그래서 정파성을 띤 국세청장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을 갖는 거지요. 그것을 해소하는 책무가 후보자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정치 한복판에 있었던 그 신분 하나로서도 이런 정치 중립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세행정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승엽 변호사와 매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법제처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 이번 개각에 포함이 됐거든요. 포함이 됐는데—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다가 본인이 고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했기 때문에—특히 이런 보은성 인사가 우리 후보자까지도 연관이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나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중립성 유지가, 본인·가족 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핵심 이너서클에 있는 그런 위치를 볼 때 중립성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정치적 중립을 철

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는 만일에 국세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거부한 그런 사례 그런 것도 처음으로 남기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중단하는 그런 사례도 남기는 그런 국세청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의 기준은 다른 청장보다도 훨씬 낮아야 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동의를 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두 번째, 제가 모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청 조사4국에서 모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후보자가 4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거든요. 그것 혹시 기억 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개별 과세정보라 말씀드리기는……

○**박대출 위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아실 건데 이름은, 제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업체 이름은 거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이름으로 묻거든요. 혹시 기억 못 하시는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하도 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박대출 위원** 조사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앞으로 너무 하도 많은 조사를 해서 하도 많은 정치적 논란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시기가 같습니다. 후보자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조사4국장으로 재직을 했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특별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4국에서. 그러니까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임광현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공직자들은 자기가 근무하던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드디어 수장을 위한 청문회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행시 38회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국세청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한 28.5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28.5년.

그러면 국세행정의 전문 관료 출신이다 이렇게 규정지어도 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동의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당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현재는 민주당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박수영 위원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서 국세청장이 되면 당적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예, 탈당하신다. 아마 최초의 정치인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 출신, 최초의 당적을 가진 국세청장후보자이신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이 정치적 중립성이고,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후보자께서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저도 그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과연 그렇게 하실 건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분이 있는데 평생 벌어들인 소득이 세전 3억 67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동산은 85억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어들인 돈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뭐가 있을 텐데, 검은 돈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맞지 않으면 세금 탈루의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탈세가 있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조사를 안 하면 탈세를……

그렇게 탈세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 봐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탈세가 있다고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3억 6000 소득인 사람이, 85억대 부동산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김혜경 여사의 불법 비서였던, 5급 비서였던 배소현 씨입니다.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 재산이 393만 원이라고 신고가 돼 있는데 도박 자금은 2억 3000만 원 가까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스매치지요. 누가 증여를 했거나 아니면 자기 소득을 신고를 안 하고 불법 도박에 썼거나 그러면 소득세를 탈루했거나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이거 의혹이 생기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마찬가지로 탈세가 있다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 보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의 장남 이동호 씨입니다. 언론에 많이 났지요. 조사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쌍방울이 있어요.

이화영 경기부지사는, 평화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지요. 특사 해 달라고 계속 조른다고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게 판결의 내용에 나온 겁니다, 법원 판결문에.

‘쌍방울의 임직원 수십 명이 현찰을 나누어 들고 중국 심양으로 이사들이 갔다. 즉석카레 안에 넣어 갔다, 책 안에 넣어 갔다,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숨겨서 세관 검사를 회피해서 갔다. 심양 공항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부회장에게 현찰을 전달했다. 그래서 북한에 전달을 했더니 북한에서 계수기로 돈을 썼다’ 이것들이 전부 판결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800만 달러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 쌍방울이 이 돈을 무슨 돈으로 이렇게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까? 기업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거나 비자금을 만들었거나 또는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를 안 하고 누락했거나 뭐 비자금을 만들었거나 수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탈루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장후보자님, 세금 탈루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여기 보니까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걸로 지금……

○박수영 위원 그런데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청장님 되시면 이런 세금 탈루 의혹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를 해서 신속히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 확정판결도 났고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신속하게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하여튼 탈세가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감사합니다.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KH그룹이 있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 이 배상윤 회장은 조폭 출신인데 22년도부터 해외 도피를 하고 있거든요. 해외 도피한 상황에서 한식을 시켜 먹고, 한국에서 불러서 시켜 먹고 이렇게 했고 전환사채 스와핑도 했고요. 변호사비 대납 지원 의혹이, 이태형 변호사에 대한 대납 의혹도 수차례 제기가 됐고 명품 롤렉스 시계 수십 개를 북한에 전달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 입찰비리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에서 탕진을 하고 또 CB 스와핑도 하고 롤렉스 시계를 전달하고, 이런 돈은 어디서 나왔나요? 회사에서 불법비자금 조성한 것 아닌가요? 세금 탈루 의혹 있지 않습니까? 탈루 의혹 있으면 조사한다고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탈세가 있다고 그러면 하여튼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탈루 의혹이 있다, 탈세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징세를 해야 조세정의가 서는 겁니다. 그걸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만약에 국세청장이 되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지요. 전문관료 출신답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임광현 후보자님, 말씀드렸듯이 크게 정치적 중립의 문제와 그리고 권력 기관에서의 전관예우 및 제 식구 감싸기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신 바대로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세의 증거와 탈세의 내용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쌍방울이든 KH그룹이든 저는 단호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대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권의 입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임광현 후보자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두 번째 전관예우 문제는 저희가 기재위에서 여러 국세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던 여러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후보자께서 예방하고 사회적 상식과 범주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퇴직 후의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전관예우 및 국세청 내의 관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세금 앞에서는 상하 좌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탈세가 있다고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들의 윤리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조세정의 차원에서 사실 원칙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탈세 증거가 있는 쌍방울, KH그룹은 저는 단호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 관련해서 주담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시장의 과열, 특히 서울 강남권의 과열 우려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왔던 비판의 요지가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부자의 자제들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현금이 정상적인 노동이나 정상적인 경제의 활동을 통해서 축적되고 저금된 돈인지 아니면 불법 증여나 불법 축적에 의해서 조성된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도 유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변칙적으로 부의 이전이 돼서 증여세 탈루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어제 회의를 하면서 확인해 봤는데 현재 서울 강북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한 4500만 원이에요. 30평 기준이면 12억이 넘어요.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저축이나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현실적으

로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현금 많은 부자와 현금 많은 부모를 둔 아들딸들이 그런 시장을 독점하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이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저는 조금 더 국세청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개별 거래, 개별 계약, 개별 청약에 대한 문제까지 살살이 뒤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문제로 제기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희 국세청에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증여를 받은 것이면 증여세를 추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에 보면 젊은, 연령대에 비해서 본인이 거둔 소득과 또 어떤 지출을 비교를 해서 그게 갭이 많이 생기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하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법인 사업자나 사업자들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부동산시장으로 돌려서 즉 대출 목적 외의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는 문제에 관해서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탈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세청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부동산시장에 더 이상 그런 위법한 사항들이 작용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자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안 되고 탈루된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위에서 그동안 금융투자소득 관련한 과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오랫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을 해 오면서 준비 기간도 썼고 그리고 국세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기 위한 장비 예산, 준비하는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금투세가 입법이 중단되면서, 현재 사실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 시장을 잘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예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금융투자 과세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책을 입법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소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문제를 저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세청의 현재 입장 그리고 후보자의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도 관련이라 사실은 국세청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폐지된 지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떠나서 조속히 과

세가 이루어져서 세부담의 공정성이 제고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후보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합리적 세정, 따뜻하게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 그리고 친납세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두 번째로는 공정한 세정으로 조세정의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세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우선 먼저 합리적 세정, 따뜻하게 일하는 국세청, 친납세 세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납세자 부담이 전혀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나 국세는 지금 0.8% 정도 내고 있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0.5% 부담하고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국세청 관련돼 가지고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 부분을 면제라든가 아니면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 줘야만 따뜻한 국세 세정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일단 지금 납부대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데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영세 납세자들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인하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지금 0.5%의 수수료를 내는데 이것을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신용카드는 0.4% 그다음에 체크카드는 0.15%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협의해서 한번 관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언제쯤이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카드사하고 금융결제원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채무 기간 7년 동안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다 탕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이렇게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국민들도 있습니다. 나는 투잡, 쓰리잡 해서 빚 갚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빚을 왜 갚았는가. 이런 게 정의롭지도 않고요. 여기서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나라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자 하고 그나마 신용카드라도 세금을 분할해서 납세하려고 하는, 얼마나 선량한 국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좀 더 인화해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아까 박수영 간사님께서 한 네 가지 정도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해 가지고 AI 대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본 위원이 방금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AI 기반 서비스 혁신과 두 번째 미션은 AI를 활용해서 공정과세를 하겠다, 세 번째는 AI 적용 세정 효율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2027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 효율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라든가 구글, 챗GPT를 사용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성……

○위원장 임이자 바로 그렇습니다. 대규모의 개인정보라든가 과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정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또 AI 학습에 따른 내부 자료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과세논리라든가 세무조사 기법이 절세를 위한 거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게 오히려 탈세, 악의적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투명성과 설명·책임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업무 효율성에 만 너무, 그런 위주로만 전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한다고 디지털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확인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또 아까 후보자께서는 ‘세무사들은 그러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셔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각 직업군 간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윤리적인 문제부터 이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보 보안 문제는 사실은 당연히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국세청은 엄청난 과세정보가 있고 그것이 유출이 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믿고 개인정보를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뢰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가장 국세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국세청 전산망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별도의 체계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로 전환이 되더라도 더욱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관련해서 납세서비스가 강화될 경우에 일부 단순, 세무대리인들의 어떤 조력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납세자들한테 수혜가 갈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세무사님들이 다른 일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 세무사분들은 더 전문적이고 그런 고부가가치의 영역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리 AI가 된다고 그래도 사상누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조심해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꼭 그렇게 해 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주질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간사님들, 보충질의로 5분……

○박수영 위원 보충질의 5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박수영 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제출됐나요,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던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분은 유상범 위원님밖에 안 계시는데요.

○유상범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위원장 임이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예, 시간을 좀 주시지요.

서울청장에 재직하는 동안 이스타항공에 대한 탈세 제보 사실이 두 차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여부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는 조금 전에 제보처리표 2건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소규모 세무법인인 선택을 설립하고 나서 2년간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선택의 이와 같은 급성장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사실은 내실 있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관예우라든지 또는 과거의 세무조사와 인연이 있는 회사의 고문을 역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은 굉장히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분명히 선택의 회계연도별 재무제표 그다음에 재직 당시 선택의 고문 수입 내역 그리고 재직 당시 세무조사, 즉 후보자가 재직 당시에 그동안 진행된 세무조사 실적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추가로 그 범위를 줄여서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임 시절에 진행됐던 세무조사 중 조사 대상 기업명단만 지금 다시 줄여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미 오전 중에도 인사청문회법 16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4조·2조 등의 여러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다른 법률에서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군사·외교·대북 관계가 아니면 제출해야 될 의무가 각 해당 법률에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고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훈 위원** 저는 이 청문회를 지금 국세청 직원들도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과 의혹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굳이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께서 청장으로 임명이 되시게 되면 국세청을 어쨌든 통솔하고 지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청장님이 청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제대로 된 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야당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대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금일 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전관예우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도 요청한 자료들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제출에 응해야 되는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도 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약간 배 짜라 식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나 우리 기재위보다는 국세청이 더 무섭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도 후보자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자료제출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굉장히 하나 마나 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엄중하게 챙겨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은석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 있습니까?

○**최은석 위원** 자료제출 요구는 아까 오전에는 안 했지만, 제가 실은 이번에 우리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세무법인 선택 관련해서 주주명부라든지 또 그동안의 배당 내역이라든지 또 주주 중에 후보자의 친인척 현황이라든지 기타수입 명세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 저도 요청했었는데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의 자료가 없이 공개된 자료로만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후보자의 전관예우나, 아니면 혹시 지금 세무법인 선택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을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서 질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 중에라도 제가 요청한 세무법인 선택 그리고 조세연구소 세금과 미래의 여러 가지, 주주명부부터 기타 배당이라든지 또 후보자의 친인척 현황 등 여덟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것이 국세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아주 필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제가 아침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세청장님은 사정기관 수장의 후보입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도 크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은 첫째 전관예우로 인한 이해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 번째가 중립성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클리어하게 하고 여야 서로가 합의를 이뤄 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는 게 국세청 공무원들에게도 사기 양양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도 본 위원장에게 계속 요청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국세청에서 내줄 수 있는 자료도 있고 특히 또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자료제출을 안 해 주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범위를 정해 주셨는데요. 선택 관련해서 재무제표하고 수입 내역 그리고 국세청 차장 시절 그다음에 서울청장 시절 그리고 조사4국장 시절에 했던 그런 내용들, 조사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대동소이한 것 같으니깐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최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지요?

○최은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게만이라도 해 주시고, 6시까지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청문회는 해 봤자 맹탕 청문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장이 청문회 사회를 보면서 계속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이것 내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안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확고하게 어떤 수장으로서의 리더십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자료제출 이것 안 내 가지고 굳이 서로 합의를 못 이뤄 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자료제출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시까지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자료제출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김영진 위원 저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료제출 범위가요, 서울청 조사국장 그다음에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기간이요 재임기간이 5년이에요. 그 5년

동안에 있는 모든 세무조사 자료를 다 제출하라 이거거든요.

○**유상범 위원**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유상범 위원** 아까 대상 기업이 먼저였어요.

○**김영진 위원** 아니, 발언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조사국장 시기와 국세청 차장 시기가 5년간인데 5년 기간의 세무조사 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의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할 수 없다. 협박 아니에요, 이것?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전에 강민수 청장 그 위에 김창기 청장, 제가 여러 번 인사청문회 했었는데 개별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어요. 국세기본법에 임의조항으로 돼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면 국세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꾼 다음에—제가 보기에—is 요청하고 그런 다음에 증언감정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국정감사 시기에 제출하는 것도 항상 이 국세기본법의 임의규정에 의해서 계속 막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 단 한 번도 개별 과세자료가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의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난다, 저는 이런 결론 적이 없어요. 강민수 청장, 그 전에 김창기 청장, 그 전 청장도. 제가 한 네 번 정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회의진행을 막았던 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지요.

그리고 개별 사기업의 자료를 법적인 기준 없이 제출하게 되면요 제가 보기에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해요. 고발당해요. 개별 기업이 만약에 저 선택이라고 하는 세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세무 관련한 세무대행을 했는데 그 기업 명단이 공개되면 제가 보기에 선택이라고 하는 세무법인은 앞으로 아무런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럴 권한이 여기 있나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타깃이 돼서 계속 정권이 바뀌면 넌 왜 거기서 했냐라고 또 조사하면 대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봤고 개별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들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렇게 가자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인사청문회 진행하면 좋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그런 식으로 후보자를 겁박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법률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쪽 간사 두 분과 그 다음에 후보자 측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관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있고 이리다 보니까 서로 주장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제출 관련돼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제출해 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조승래 위원** 뭘 이걸 가지고 정회를 합니까? 발언 기회 좀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승래 위원 뭘 정회를 합니까?

○위원장 임이자 일단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국세청장 청문회를 한 네 번 정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쪽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청문회가 계속 공회전으로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시지요?

○진성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중립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분이 우리 쪽이 뭐예요, 우리 쪽이?

○위원장 임이자 4시 반이니까……

○진성준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임이자 과방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4시 반이니까……

○진성준 위원 아니, 우리 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뭘 태도예요, 이게!

○위원장 임이자 5시까지 양당 간사 간에 자료제출 범위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서로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당 간사님들께 자료제출 관련해서 서로 협의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박수영 간사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온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박수영 간사입니다.

아까 여당 간사님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관해서 의논을 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국세청이 관련 통계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지금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하지는 않지만 인사청문회를 속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세무법인 선택 관련해서 주주명단 받으셨고요?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조사국장 재직 시기별 총조사 건수 받으셨고요?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와 관련해서 비공개는 비공개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이의 있으신가요?

○박성훈 위원 내용을 보지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아직 못 봤습니까?

○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곧 배부해 드리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은 됐다는 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지요.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금투세 폐지에 관한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폐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야당 중에 한 군데만 합의가 됐고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저희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다수 야당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야당이 다 합의를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정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아까 전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국세청법 제정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비롯한 다른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현역 의원께서 국세청장 내정이 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도 정치적 중립성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시다라는 제도적으로도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에 따르면 ‘국세청의 중립성, 책임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세청법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앞에 전 청장이신 강민수 청장께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위원님이 오늘도 질의하셨던 진성준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 ‘국세청법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유관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서면답변에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전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서면답변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지 않나를 느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세청의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국세청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 그

최종 보고서 이것을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세청법 제정 관련해서, 그런데 이 연구용역 최종 결론에서 도입 신중 의견을 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국세청법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의 국세청 관련 법률들은 각각의 조세행정 체계를 개선하고 납세자와 정부 간의 조세행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미국·호주·일본에서는 별도의 국세청법이 없지만 조세행정 관련 법률을 통해 국세청의 권한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7대 국회, 2004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시작으로 해서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이 계속되어 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제시해 드린 이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보면 약간 내용이 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국세청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세청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한 논란, 기존 법령과의 충돌 그리고 정치권 내의 반대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세청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여야가 모두 동일하게 발의한 법안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 권력기관 중에 국세청만 유일하게 개별 조직법이 없으니 정치적 논란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는 국세청법 제정으로 논란을 종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좀 전향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셨는데 후보자께서도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서 의지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세행정의 독립성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또 하나는 국세청 직원들이 다른 수혜 행정이 아니고 세금을 걷는 행정이라 사실은 민원에 많이 직면을 하고 있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세청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검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10초만……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합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이왕 언급한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법 도입과 후보추천제, 세무조사 중립성 확보 방안,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에 대해서 모두 다 도입 신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찬성한 게 하나 있어요, 찬성한 게. 그 찬성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찬성한 것 한 가지가 세우회의 법정 공제회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세우회

는 아시다시피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법인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정작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신중이고 국세청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이 용역 보고서가 찬성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 보고서 실망스러운 부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차분하게 살펴봐 주시고 국세청법 제정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세무법인 선택 최대주주인 임 모 씨하고 후보자님하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법인은 제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이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또 대표를 맡게 되신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최대주주인 임 모 씨하고는 어떠한 인연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세무법인과는 저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가 행정사무관으로 국세청에 근무를 할 때 2년간 국비유학을 다녀오셨습니까.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이수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위 과정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훈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통상 로스쿨이 JD는 3년 과정이고 그 외에 LLM과 기타 과정들은 1년입니다. ITP(International Tax Program)도 LLM과 같이 20학점을 이수하는 것인데 1년짜리 과정이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비유학은 해외 훈련은 2년이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2년이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2년에서 이 ITP 과정을 마치고 1년이라는 기간이 남는데 이 1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처음에 유학을 갈 때 국외훈련과와, 1년짜리 과정이었기 때문에 1년은 학교에 있고 나머지 1년은 비지팅 리서처(visiting researcher)로 있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갔었고요.

두 번째는 로스쿨에서 비지팅 리서처로 있었고 그거 관련된 자료나 또 그 당시에 관련된 보고서 등은 충실하게 당시에 행정자치부 국외훈련과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당 연구활동이나 그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제출할 수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과 그다음에 그쪽 두 기관에 제가 제출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지금 24~2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료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오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포스코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당시에 아마 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사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외압이 가해지던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순방 시에 수행기업 명단에서도 배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게 당시에 정치적 하명조사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후보자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강민수 전 청장님 인청 때 우리 후보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수 청장이 ‘제가 특정 건에 대해 말씀을 못 드리고’라고 했더니 지금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이 거부가 되면 지금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 입장이 유효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때 제가 강민수 청장께 했었던 취지는 결재권자가 누구냐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었고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예 질의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국가의 4대 사정기관 중의 하나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과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또는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경제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심지어 정치적 하명수사나 정치적인 그런 세무조사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진영에 가해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후보자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기업이나 또는 경제계에 이러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 논쟁에 휘말리면 국세청에 신뢰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안 오셨지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의 연장에서 고액 채납자 현황과 그에 따른, 어떻게 하면 추가 징수 가능하나에 대한 상황 인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고액 채납자의 누계 채납액이 약 101조였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고액 채납자 중에서 고액 상습채납자는 채납액 2억 이상, 1년 이상인 경우는 따로 별도로 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101조나 되면 이게 되게 큰 거 아닌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세청 국세행정을 담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현재 이 101조의 채납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징수 실익이 적은 그런 채납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납을 재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분류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재산의 생계형 채납자들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가급적 당겨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악의적이고 고액 상습채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추적을 좀 해서 걷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보니까 악의적 고액 상습채납자가 매년 한 4조~5조씩 막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작지 않은데 실제 생계형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추심하는 게 가능하나, 적절하나 이런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더 조세행정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에 관련한 어떤 대안적인, 효율적인 방안 논의해 보신 게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이디어 같은 것 있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일단 저희가 채납정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채납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분류,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듯이 악의적인 그런 고액 상습채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정보 그다음에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후에도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 요즘 AI 시스템 도입한다는데 실제 이런 데 대해서 소득까지 파악을 해서 정확한 흐름들을 추적하고 좀 집중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제안과 관련해서, 은닉재산신고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일정 정도 악성, 악의적 고액 채납자라고 하는 게 분류가 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채납된 거니까 포상금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해외에 도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포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주변분들에 의한 제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긴요한 제도고 도움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 규모가 예산이 되게 적게 배치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악성 고액 채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시스템의 진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EITC입니다. 근로장려세제 관련해서 이 금액이 적지는 않고 상당한 금액인데 EITC에 대한 그 금액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700여 명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EITC 제도에 들어가는, 함께 참여하는 인원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업무 자체가 반복되는 업무라면 좀 다른 식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직원, EITC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1명이 1인당 1700가구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와 소득세 업무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제도는 국가재정이 허용이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가 때문에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저는 인력 증원보다는 AI 시스템이 작용이 되는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는 EITC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에 따른 대안 제시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이인선 위원 어쨌든 공직에서 국세업무를 26년 정도 하셨고 세간에서는 조사통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본인 생각도 그렇겠지만 조사통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은, 조사업무를 맡은 이유가 법을 잘 이해하고 세법 질서 확립과 공정과세 실현에 매진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특히 후보자께서는 월급 방위대 이렇게 별명이 붙으면서 연말 정산이나 소득공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특히 직장인에 대한 조세정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좀 두텁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맞습니다. 월급봉투 사이즈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조세정책으로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대상 고위공직자 후보들을 보면 연말정산 부당공제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가부장관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은마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주택자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어쨌든 1200만 원 받아서 미처 몰랐다는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자부장관후보자도 보니까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지고 연간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의 공제를 받았고, 과기부장관후보자도 역시 부모를 부양한다면서 연말정산 혜택은 받았는데 실제로 부모가 독립생계라고 재산고지를 거부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 재산을 다 계산하고도 6억 정도가 있는데 이 6억이 기타소득으로 되면서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는 것 맞습니까? 과세할 근거가 지금 기타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이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법상 명백하게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미처 몰랐다는 부분으로 사과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이인선 위원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부당 공제를 받게 되면 국민 세금을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세 행위를 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에 보면 어쨌든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렸을 때 벌금을 물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는 아무튼 이런 세법을 잘 몰랐다면 공직자로서 무능한 거고 세법을 알았다면 조세포탈을 한 경우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국세청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위화감을 가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이인선 위원 그다음에 오늘 실은 제가 중고품 수출 과세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커머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님, 오늘 이런 세미나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와서 세미나를 같이 했었을 텐데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고품 수출에 대해서 보면 과세에 대해서 불공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보면 24조, 25년에는 42조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살 때도 세금을 매기는데 다시 매입하고 매출하면서 또 세금을 매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세금정책을 시행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이 부분을 잘 살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후보자께서도 중고 이동단말장치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행사를 했고 세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연말정산 관련해서 가장 빈번한 것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 전에 이 자료를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오류가 대폭 축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중고품 수출 관련해서 사실 지금 현재 재활용폐자원이거나 중고자동차만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재부 쪽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고품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번 중고품 품목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해서 이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재부와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이런 중고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천하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목소리를 내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사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됐다고 봐지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우선 양당 간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지점은 특히 재벌·대기업들과 체결한 자문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역들이 지금 충분히 회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실하게 회신이 됐더라면 전관예우 논란이 없는 것인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이렇게 마음 써 주시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님, GS칼텍스 자문계약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회신을 해 준 기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GS칼텍스가 2022년 6월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이셨지요? 22년 6월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22년 6월이면 제가 차장이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다음 달인 22년 7월에 퇴직을 하셨고 두 달 있다가 22년 9월에 세무법인 선택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이라는 표현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천하람 위원 대표 세무사가 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세무법인이 신설되고 딱 한 달 뒤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세무조사가 있었고 후보자가 7월에 옷을 벗고 9월에 세무법인 선택이 설립됐는데요. 그 직후인 한 달 있다가 2022년 10월에 GS칼텍스가 세무법인 선택하고 총액 1억 7200만 원 상당의 상당히 규모가 큰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전관예우 아닙니까?

네 달 전에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서 있던, 세무조사를 당하던 기업이 네 달 있다가 후보자가 대표 세무사로 참여한 세무법인 선택하고 1억 72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해요.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답변드릴까요?

○천하람 위원 예.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일단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인이 한 것과 개인이 한 것도 역시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적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법무법인 생활도 해 보고 해서 아는데요. 대기업 자문계약 따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협상하고 내용 주고받고 이런 것만 해도 한 달 이상 훌쩍 걸립니다. 그런데 세무법인 선택은 어떻게 된 건지 설립하고 한 달 있다가 GS칼텍스가 1억 7000만 원 이상대의 자문계약을 덜컥 체결해요. 그러려면 거의 세무법인 선택을 시작할 때부터 GS칼텍스가 먼저 자문하려고 달려와야 가능한 수준 아닌가 싶은데…… 이거 GS칼텍스 자문계약 세무법인 선택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셨습니까, 후보자가 안 하셨으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글썄,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천하람 위원 계약서에 분명히 세무법인 선택 대표자, 후보자 성함이 날인이 되어 있

어요. 그리고 설립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상당히 규모가 큰 자문계약 체결하겠다는데 아무리 후보자께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계약은 법인과 법인 간의 체결이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마 대표이사 명의로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볼게요. 그러면 국세청 차장 출신의 후보자가 안 계셨다면 GS칼텍스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설 세무법인에 이렇게 규모가 큰 자문 계약을 굳이 체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전관예우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업 쪽 입장을 들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하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전관 특혜도 없었고 그다음에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그리고 여기 말고도요…… 제가 아까 자료 계속 난리를 좀 친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대기업이 여기 말고 최소 세 군데 이상 이런 비슷하게, 굉장히 큰 규모의 자문계약을 세무법인 선택하고 체결했습니다.

후보자, 다른 10대 기업집단에 들어가는 기업하고 세무법인 선택이 자문계약 체결한 것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관 특혜는 없었고 세무법인에서 제가 받은 것은 월 1000만 원대의……

○천하람 위원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을 떠나서요. 세무법인 선택하고 다른 대기업, 우리가 알 만한 10대 기업집단에 들어가는 대기업하고 자문계약 체결한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서하셨다는 거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것은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천하람 위원 아니, 개별 기업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전관예우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문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체결 여부인데 왜 그걸 답변을 못 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다 제출 요구를 의결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어떤……

○천하람 위원 자문계약 다른 대기업하고 체결하신 거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선택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날카로운 질의시네요.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특히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탈세 제보를 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삼자가 이것을 가지고 제보한 게 아닙니다. 직원

들이 그 회사의 아들과 또 그 회사를 상대로 탈세를 제보했다는 것,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중진공 이사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스타항공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30일에 한 제보는 8월 10일 자에 그냥 과세자료 활용으로 종결이 됐어요. 또 2021년 4월 28일 자 제보가 된 것은 2021년 9월 23일 자 과세정보 활용으로 일반 세무서 이송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제보고 거기다가 회사 내부의 근로자가 접수한 제보입니다. 이 사안이 큰 사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광현 후보자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세청 내부에서, 서울청 내부에서 이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서울청에서의 탈세 제보 처리가 허술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별 과세정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건도 다른 탈세 제보 건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탈세 제보 처리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모든 일에는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생깁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도 많은 게 있을 거고.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이 처리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삼자가 익명으로 하는 것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근로자가 그 회사의 오너 일가를 상대로, 회사를 상대로 탈세 제보를 하고 이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몰랐다,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탈세 제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제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탈세 제보의 증빙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요건에 맞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 요건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사안 자체가 회사에서 문제가 됐고, 자식들에게 주식을 저가로 넘기고 하는 사안이 되면 증여세 문제에 다 걸려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보가 어떻게 모든 증거자료가 명백히 갖춰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눈감았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나치게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게 너무 드러나 보여서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선택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직원들과 이사들이 있는데 83년생, 79년생, 79년생, 83년생 다 이래요. 이분들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많은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는 바로 세무사를 하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택에 있어서 고위공직을 한 세무사는 우리 후보자밖에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방금 천하람 위원이 지적했듯이 GS칼텍스가 선택과 고액의 자문계약을 맺었

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결국 임광현 후보자를 보고 자문계약을 맺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국세청 고위직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본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구별이 되어야 하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다음에 법인이 한 일과 개인이 한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잘 아는데 제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었던 그 세무법인에도……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유능한 직원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유상범 위원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이 됩니까? 이 사원과 이사 중에서 후보자와 같은 고위직을 경험한 사람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GS칼텍스가 전혀 이름도 없고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세무회계법인에게 고액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를 보고 한 겁니까? 명의를 당연히 법인으로 하지요.

그래서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택이 어떤 회사랑 자문계약을 맺었는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내시고 계속 ‘나는 전관예우가 없고 양심에 꺼리고 법에 어긋나는 일을 안 했다’는 변명만 한다고 증명이 되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여당에게는 한 명한테 1분을 더 주셨고요. 야당 위원님들한테는 두 분한테 1분씩……

○위원장 임이자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 하실 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셨습니다. 흐름을 끊어 놓으시는데……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이어 간 GS칼텍스와의 자문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 보지요.

그러니까 세무법인 선택의 입장에서는 GS칼텍스라고 하는 회사가 세무에 관한 자문계약을 요청해 온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신생 법인에 대기업이 와서 세무계약을 하자, 자문을 해 달라라고 요청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당신 왜 우리 법인에 왔느냐? 혹시 내가 국세청 차장 출신이라 그 덕을 좀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온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을 못 하겠다’ 이게 회사의 입장이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법인과 법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법인의 대표자인데 어떤 경로로든 후보자 본인이 GS칼텍스에 무슨 교섭을 해 가지고 세무 자문계약을 따 온 게 아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성준 위원 글썄요. 어떤 경위로든 GS칼텍스가 선택과 자문계약을 맺었는데 선택의 대표로서 ‘혹시 GS칼텍스가 임광현이 국세청 차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 덕을 보겠다고 온 거냐?’ 이렇게 물어서 ‘그렇다면 당신들하고는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날 만한 일을 추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어떤 경위로 계약을 맺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회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불법이나 부정이나 또는 무슨 전관예우 같은 것들을 노려서 국세청과 무슨 작업을 했다거나 또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자문을 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을 따져야 될 것은 GS칼텍스를 상대로 따져야 될 일이지 후보자를 상대로 따질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과도하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기재위 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부가감세로 인해서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래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어서 세입경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직접 세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세입 징수, 부과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장으로서도 똑같이 고민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 한 2년간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이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서라고 해요. 가령 2023년에만 해도 세수결손액의 43%를 법인세가 차지했었고 또 2024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9%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약 90%가 상위 10%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한 5조 6000억쯤 됐는데 최근 2년간 법인세 결손 한 40조 가운데 30%가량이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입 구조가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조

를 어떻게 탄탄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선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개진하고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진성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후보자님, 오후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액주주와 자본시장을 무시한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형태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올해 대주주 사익편취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두 회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그날 당일 주가가 한 13% 하락했고 시가총액이 4조 3000억 정도 증발한 사건이 있었고요. 태광산업이 6월 달에 보유 자사주를 전량으로 EB 발행한다는 소식에 당일 주가가 한 11%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주들한테 패닉을 갖고 왔고 자본시장 전체가 이 두 회사 때문에 신뢰도가 되게 추락하는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사건이었는데, 물론 금융 당국과 시장의 반발로 두 회사 모두 실행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의 아주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요,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아까 말씀하셔서……

○최은석 위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은석 위원 이렇게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이면에 또 다른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광산업의 예를 좀 더 보면 태광산업은 발행이 예정되었던 교환사채 중 상당 금액을, 태광그룹의 사모펀드 계열사인 티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회사지요. 여기를 통해서 애경산업 인수에 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EB 발행이 사실상 계열사인 사모펀드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작동한 셈인데요.

티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는 2024년 설립된 회사인데 태광산업과 티시스, 이런 계열사도 있지만 이호진 회장의 자녀인 이현준·이현나가 각각 9%씩 18%를 출자한 회사입니다. 문제는 티투프라이빗에쿼티가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출자 약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광산업이 직접 애경산업을 인수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상한 인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티투프라이빗에쿼티가 펀드를 구성해서 태광산업은 펀드에 출자하고 펀드가 애경산업을 인수합니다. 통상 사모펀드가 조성한 펀드는 몇 년 후면 다 해산되는 것 아시지요? 해산되면 아마도 해산 시 태광산업이 이 티투PE로부터 애경산업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인수 구조를 취할까요?

후보자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어쨌든 국세청에서는 대기업의 지분구조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은석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PE는 연기금 등 외부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펀드를 조성하는데 대기업 계열사가 대주주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PE에 출자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일종의 신종 일감 몰아주거나 신종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로 인수하게 돼서 회사 경영에 성공하게 되면 1인당 9억 정도 출자만 했던 대주주 자녀는 막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인수 후에 회사 경영에 실패하더라도 이 자녀들은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후보자님도?

그래서 이게 보면 새롭게 대주주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 자금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어떤 회삿돈 유용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에쿼티, 사모펀드 회사를 앞세워서 이익은 몰아주고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혹시 또 다른 경영권 승계의 편법 통로라는 지적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국세청이 이런 일부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이나 비상장 계열사 등을 활용한 수익 이전, 우회 증여 이런 것들이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필요하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판단해 주시고 향후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은 여러 가지 언론 자료나 또 공시 자료 등을 통해서 대기업 사주들의 지분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이 내용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그런 사례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 잘 모니터링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기상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임이자 아, 저기 계시네. 안 보였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셔서. 야당인 줄 알았

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아이고, 참 즐거운 시간을 만드시네.

○위원장 임이자 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십시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기재부에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세청은 이러이러한 일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일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국회의 입법이나 기재부의 행정 관련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 뭐가 있다라는 게 큰 틀에서 있으면 말씀을 우선 듣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역할 분담은 세제 관련 사항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고 그 만들어진 세제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국세청의 역할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인사 교류가 있어서 두 기관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좀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세제실과 국세청의 인적 교류가 있어서 세제와 세정이 같이 이렇게 소통이 잘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민들께서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내야 될지 잘 모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기상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정치영역, 즉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이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고 주권자로서 헌법적인 권한 행사를 잘하고 계신데 유독 세금 관련해서는 어렵다,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 공무원들의 권한이 막강하게 느껴지고 또 그로 인하여 세무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런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늘 새로운 국세청장후보자에게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구나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부당하게 과한 징수를 하려고 할 때 대항할 수 있는데 결국 그게 안 되면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국세청장이 되신 분들은 또 본인들의 임기가 1년, 2년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다루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이것 관련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 좀 있는지 우선 듣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예를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양도세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생활 세금이라 누군가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취득했고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얼마의 대출을 받으면 다른 집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양도세가 너무 복잡해서 그걸 계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무사한테 들고 가면 세무사들도 계산을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세제를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세청이 세제 관련은 기재부 사항이다 해서 웬만하면 간섭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 모두발언에서도 있듯이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세제 관련해서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기재부에 건의하도록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사법 체계나 세제 체계가 명료하지 못하면 주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국세청장 취임하시게 되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 있는지 검토를 꼭 해 보시고 본인이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후임자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50년, 100년 후를 보고 세법 체계를 임광현 국세청장 때 손을 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 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역량도 있으시다고 평가하고요.

그 관련한 각오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조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백년지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조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티켓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게 티켓 중개거래 플랫폼인데요. 구매자는 수수료가 없고 판매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티켓 가격은 액면가보다 높거나 또 낮을 수도 있다고 돼 있기는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주말에 대전에서 KBO 올스타전이 열렸거든요. 대전에서 야구장 표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 가지고 피가 튀는 전쟁 같은 티켓팅이다 그래서 피켓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될 정도로 표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매사이트에서는 매진이 됐는데 바로 티켓베이에서 재판매 표가 올라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100b라는 데는, 두 번째 거요, 중앙탁자석인데 이게 1매당 7만 원입니다. 이게 99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외야석은 1매당 2만 8000원이었는데 이것 또한 99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온라인상의 암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연법에는 부정판매—이게 암표 판매하는 겁니다—이것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반복 입력하는—이게 매크로입니다—그러니까 매크로를 돌려서 예매를 하거나 그

렇게 해서 확보하는 이것만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문체부장관이. 그런데 문제는 문체부장관이 이런 중개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뭘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국세청은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아까 환급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환급을 최대한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온라인 압표와 관련해서도 문체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만약에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한다면 이 문제는, 온라인 압표상을 근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 보는데 혹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보니까 티켓을 정상 가격으로 사서 고액의 차액을 남기고 파는 행위가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동일한 IP, 동일한 ID 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티켓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매크로를 단속하는 단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술이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문체부와 협의해서 온라인 압표상들이 좀 근절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 편하게 한국시리즈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선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전관예우를 보통 받는다 그러면, 과거에 국세청 퇴직자들이 전관예우가 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국세청 관련해서 전관예우라는 얘기를 저도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최근에는 퇴직자 공직윤리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 정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불식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승래 위원 물론 한 10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지 않은 급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법인의 평균적인 급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그렇게 과한 급여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들 보통 평가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래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전관예우가 있고 그에 따라서 대기업들을 소위 싹쓸이 계약을 하고 그러면 급여를 더 엄청나게 책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통상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심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과하게 급여를 책정했거나 또 후보자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압력이

나 소위 전관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후보자님, 보통 조사국 업무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요 기업의 조사업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을 통상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기간 진행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조 단위가 되는 대기업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3개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진 위원 6개월 이내에는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는 거네요, 그 정도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쌍방울과 KH그룹 관련한 세무조사를 윤석열 정부 국세청에서 2022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개별 기업이라서 물어보지는 않는데, 저는 이상해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장이 윤석열 정부의 조사국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의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없다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윤석열 검찰의 검찰수사, 법원의 재판을 묶어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될 세무조사가 아직까지도 결과를 모른다고 이렇게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쌍방울, KH 다 지금 이재명 그때 당대표를 엮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 속의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없고 결국은 그것은 검찰의 기소 이런 부분으로 우회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내포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이 되시면 이렇게 잘못된 수사의 시점과, 개시와 종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문제됐던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다시 한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엑셀방송 세무조사 관련한 사안들을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고액 후원자와 별풍선 대리 충전업체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신종 사이버 립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에 관한 세무조사 관련한 보도자료였고 거기에 참여하는 BJ들, 그리고 BJ들이 실제로는 경쟁을 시켜서 아주 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별풍선을 받고 고액 후원을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탈세와 검은 돈의 세탁 과정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직접 연락을 해 보면, 별풍선 대리 충전업체에 연락을 해 보니까 4000만~5000만 원 정도의 고액 당일 충전도 가능하고 계좌이체가 꺼려지면 현금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고액 현금의 경우 업체가 직접 와서 수령도 가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액

의 자금세탁과 탈세의 과정으로 현재 이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들은 바 있고 저희도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정보수집과 또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SOOP TV라고 하는 불법자금 세탁이 난리가 났다’, ‘저도 제의가 들어온 걸 본 적이 있다’, ‘400억~600억 녹여 달라’, ‘이게 불법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거지, 여기를 거치면 합법이 되니까’ 하면서 그런 회사의 BJ들에 대한 수사만을 했지 실제로 대리 충전을 하거나 충전을 의뢰해서 백페이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관한 조사나 이런 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역의 탈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전체 세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새롭게 드러나는 현상이고 사실은 고액 유투버들, 여러 가지와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세원에 대한 관리·조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유투버들이 올리는 수익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탈루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 정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환 위원님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1분 더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공정하게 주셔야지요. 조세정의와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맞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김영진 위원 하나 더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2020년, 21년에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포괄적 이행체제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OECD 20개국, G20 이렇게 다 진행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이것을 비관세 장벽의 다른 무역 장벽으로 인식을 하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G20나 OECD국들에 관한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 추정치 12조 1350억이라 사실 우리나라의 경쟁 업체인 네이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실적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0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관세전쟁에서 오는 비관세 장벽의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또다른 과세체계 정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필러 1·2인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탈퇴를 하겠다 해서 약간의 난관에 봉착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끼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조해 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22년 9월에 설립한 지 2년 만에 그 선택이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체에서 63위, 그다음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는 4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위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도 없고 증인도 못 부르고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후보자가 1200만 원가량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보수로, 월급 형태로……

○권영세 위원 월급 형태로. 그런데 월급 형태면……

또 법무부 자료상, 등기부상 보면 이게 좀 되게 이상한데 이게 5명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1명인 임 모 세무사가 1억 99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4명에서 1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월급식으로 받는 사람이 투자는 왜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참여를 하려면 한 주는 세무법인의 설립 원칙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권영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투자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거기에 나온 부분……

○권영세 위원 나머지는 다 월급쟁이네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소위 어쨌라고 하는 회계사든 세무사든 그런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그 유보금이, 통상적으로 아까는 후보자가 이런 예도 있다 그러는데 23년에 26억 24년에 55억, 당연히 후보자 몫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투자까지 한 5명 중의 1명인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임 모라는 분이 국세청의 고위직 출신입니까? 나이가 보니까 83년생이면 그렇게 고위직일 수가 없던데,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기업에 관한 사안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취업을 해서……

○권영세 위원 개별 기업이지만 후보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 어쨌든 투자까지 한 5명 중의 1명인 업체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

오전 중에 앞으로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챗GPT나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이 아니라 소위 소버린 AI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

셨는데 이거는 당연히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이런 정도 레벨은 아니지요? 그렇지
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세청 내부에 목적을……

○권영세 위원 제한된 분야에 하는 거다 이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소위 범용 AGI는 아니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GPU를 700개 확보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거의 27년 한 해에 다 확보하는
걸로 댔다는 말입니다, 26년에는 한 몇십 개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런데 GPU가 하나에 얼마씩이나 하는지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한 4000만~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27년 한 해에 한 350억 정도를 투입할 건데 그건 저희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사실은 저희가 최소 개발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데, 가급
적 빨리 프로젝트를 성과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해에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 쉽지도 않을 겁니다.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GPU 중에
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4000만~5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 소위 H100이나 H200 같은 경
우는 물량도 그렇게 쉽게 확보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AI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자료를 넣게 되면 더 많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새롭게 어떤 추가 자료를 집어넣어서 더 정확한 국세행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저희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매우 방대합니다. 그
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내용들을 학습시켜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
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리고 AI면 보물상자 같아 가지고, 요술상자 같아 가지고 뭐든지 집어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의 편향성에 따라서는 그 결과
의 편향성도 초래한다. 지금 인종주의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이념 편향이라든지 이런 걸
초래한다는 얘기는 듣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권영세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평
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조작하기에 따라서는 결과가 편
향되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든지 이걸 AI가 선정한 것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납세자들에게 설명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건 사
람이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편향성이라든지 오류가 없도록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제 말씀은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6분 넣어 주세요.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에서 제가 조세정의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드렸는데요. JP모건이 최근에 ‘2년 내에 코스피 5000 간다’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엇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국내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 신뢰입니다. 정치의 변화를 첫 번째로 얘기하면서 그 정치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끌어내고 있고 그 민주적 감시통제가 이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를 또 통제한다. 그래서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최근 일련의 변화들이 코스피 5000을 만들 것이라라는 게 JP모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기저에 있어야 되겠지요. 국세청은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정의로운 세정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장 밑바탕에서 보낼 수 있는 국세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노태우 비자금 그게 증여가 됐는지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21년 10월 26일 사망 후에 상속의 문제로 전환이 됐는지…… 2008~2009년에 한 번 놓쳤잖아요, 국세청이. 실기 한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을 일으켰던 그리고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던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뒀던 그 세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 대여, 상속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조세정의를 살려 내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때 검찰의 후속타가 없었어요. 국세청이 형사적으로 처분을 했어도 과세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시다. 그 재산을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과세 문제는 죽음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뒤에 또 조세정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GS칼텍스하고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1월 27일 총수일가 기업 16곳 세무조사를 했어요. 결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자녀들이 증여받은 평균 66억의 종잣돈이—평균입니다, 1인 평균—5년 만에 1036억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발표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또 있습니다. 제가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GS인데요. 지금 2년 연속 규제 대상 회사 수가 1위입니다, 79개 중 1위, 조사 대상 기업들 중에.

그런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고요 역외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을 이용해서 수익 이전 의심 정황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중국 계열사 이용해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GS칼텍스가 직접 종속회사를 두고 매출을 일으켜도 되는데 어떠한 구조를 만드냐? 위너셋이라는 국내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3·4세 오너들이. 그리고 GS아로마틱스라는 싱가포르, 조세피난처 소재에 회사를 하나 둡니다. 그리고 종속 회사들로 중국 법인들을 꾸르륵 둡니다. 그런데 GS칼텍스가 도와줘요. 사이드로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쪽 회사들로부터 아로마틱스로 이전이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보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거기 저과세거든요—그쪽에서, 위너셋에서 배당을 해 줘요.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게 뭐지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국내로 자산을 이전시킵니다, 세금을 감면 받으면서. 그리고 그 유보가 집중된, 그러니까 이익이 국내로 이전된 것들을 배당을 하는데—최근에 배당 분리과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20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모수가 얼마여야 돼요? 2%, 3% 정도 배당 치고 한 30억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삼십억 돼야 되지 않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조세 구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편취하는 겁니다.

GS칼텍스, 인연이 없다고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조세행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거기에서 그 경력을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 하면서 또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세법과 세제 분야까지 그 전문성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조세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관련법도 발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전과는 다른 국세청장을 경험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세청이 징세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세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세법 당국과 협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전문성들을 활용해서 또 이런 경험들을 활용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크게 기대를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 ‘따뜻한’ ‘일 잘하는’ ‘합리적’ 그다음에 ‘불필요한 억울함,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또 ‘납세자의 사정과 애로 해아리도록’ 이런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은 설마 없겠지 싶기는 합니다마는 내가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했는데 별 게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데 알아서 납세 좀 해라 이런 주문들을 한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데, 조사 나간 사람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 조사해서 나오는 게 없으면 ‘성실 납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 와야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표창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표창을 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보니까 0원 결재, 0원, 제로. 징세를 하나도, 세원을 하나도 못 찾아서 들어가면 야단맞을까 봐서 그러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0원 결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규정이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규정이. 그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징세 당국의 이익으로 해야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 같으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김태년 위원 그게 상식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야지요, 애매하면.

그런데 보통은 징세 당국의 편익, 다른 이야기로 징세 당국의 이익으로 그냥 처리를 해요.

1년에 환급액이 얼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징세 잘못해 가지고 환급해 주는 돈이 1년에 얼마씩 정도 됩니까? 조 단위지요, 조 단위?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조 단위?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건 로펌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세무 당국에서 징세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리고 억울해하면 ‘소송하세요’ 이러잖아요, 국세청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면 납세자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지금 역진적 조세부담 이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걸 조세정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김태년 위원** 이게 감세 영향이 큰, 감세 때문에 생긴 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지금 근로소득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특히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16년 동안 과표가 한 번도 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기본공제금액도 지금 한 번도 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명목임금은 상승을 하는데 과표가 조정이 안 되니까 세금이 그냥 앉은자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리 없는 증세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여기 관련된 과표구간 조정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해 놓고 본인은 처리 못 하고 지금 남은 사람들에게 숙제를 딱 떠넘겨 놓고 국세청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숙제를 하긴 하겠습니까마는 거기 가서서도 아까 말했던 기재부나 세제 당국과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명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아까 오전 질의 때 제가 얘기한 것 파악하셨지요, 가상화폐거래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어딘지 이제 확인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게 후보자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재직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렇지요, 세무조사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것은 확인이 된 거지요.

당시에 이 업체가…… 업체라고 그러나요, 거래소라 그래야지요. 이 거래소가 800억대 과징금 받은 거, 추징금 부과받은 건 아시지요? 800억대,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

○**박대출 위원** 지금 후보자가 설립한 세무법인이 아니라면 이 업체가 800억대 되는 데…… 불과 그 시기가, 세무법인 선택이 신생 법인이거든, 한두 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후보자 아니었으면 자문계약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뒤에 말이지요 이 800억 원의 징수 처분, 그러니까 세무법인 선택과 자문계약을 맺은 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800억대 추징금 부과가 제로로 돼 버립니다, 0원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2020년에서 2023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치고 2022년에서 2025년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서 액수를 줄여 가면서 결국은 최종 0원으로 되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

○박대출 위원 그러면 세무법인 선택이 자문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자문 역할을, 자문을 해 줬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업체가 제가 있었던 그 기업과 자문계약을 맺었는지 오늘 처음 지금 알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 통해 알게 됐고.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문……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말씀도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자문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글썄, 어쨌든 저는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박대출 위원 처음 했다고 모른다고 해 버리면 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어쨌든 저는 그 업체의 자문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관여를 안 했는데 800억대의 추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신생 세무법인에 자문계약을 의뢰를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갈까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제가 적을 두고 있었던 세무법인에는 국세청 조사국 출신들의 유능한 세무 대리인들도 있었고 또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국세청법 제정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엔? 제안한 적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중에 내용을 하나 보면 국세청 공무원의 대통령실 파견근무 제안이라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이게 국세청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국세청장 내정되기 이전부터 세무 업계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파견 국세 공무원 명단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후보자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혹시 들은 바 있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도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요, 소문은 다소 부정확한 면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파견은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국세청 감사관, 지난 6월 국정기획위로 파견된 분 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와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이자 예.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절친은 아니고요, 후배 공무원입니다.

○박대출 위원 아, 후배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한다거나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추천을 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혹시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던 대통령,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던 후보자 결국 현직 여당 의원 그리고 최측근 가족을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국세청을 권력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고자 해서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박수영입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이라는 큰 조직의 수장으로 지금 검증을 받고 계신데, 국세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박수영 위원 정원이 2만 1150명, 현원이 2만 1157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조직 구조가 상당히 압정형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하위직은 많고 상위직은 적어 가지고 인사 적체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국세청 공무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은 다른 중앙부처 평균보다 6급 이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급 이하, 중앙부처는 85% 정도 되는데 국세청은 92%가 되고 있습니다. 압정형으로 돼 있어서 승진하는 데 애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 소요 연수도 9급에

서 6급까지 승진하는 데 중앙부처가 17년, 국세청이 약 20년 걸려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청장님 되시면 직원들 사기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국세청법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기재부와 의 교류를 생각하면 해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직공무원 되면 일반직공무원들하고 교류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하위 직원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위의 직원들, 상위직 직원들은 보면 대형 로펌으로 많이 가요. 로펌에서 국세청 공무원들 모시기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고 이직 후 연봉을 보면 기재부 퇴직자들은 이직 후 연봉이 공무원 때보다 약 4배 증가했는데 국세청 공무원들은, 퇴직자들은 약 8배 증가했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즉 기재부 공무원보다 국세청 퇴직자들이 더 선호되고 있는,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가고 있어서 이것도 일정한 형태의 전관예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세청 퇴직자들이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고 대형 로펌으로 가다 보니까 6대 로펌을 대상으로 한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연달아 이렇게 깨지고 있는 표를, 보이시지요? 6대 로펌 중에,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FF로펌으로 가면 21년, 23년, 24년에 100% 패소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국세청이 다 지는 거지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첫째, 국세청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 지금 현재 국세청 공무원들의 실력이 로펌으로 간, 전관예우 받고 간 분들보다 좀 못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실력은 좋은데 전관예우, 즉 선배들을 모시느라고 열심히 소송을 진행 안 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100%나 막 지고 이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실과세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실과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정확하게 과세를 했다고 하면 그 과세를 지킬 수 있는 소송 대응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역량이 뛰어난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직원들이 보통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전문인력인 변호사들 특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개선되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역시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에 비해서 연봉이나 이런 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박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로펌에 변호사들도 있지만 국세청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또 전문위원으로 가서 보태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리데 정말 문제가 많아서 혹시 취임하시면 잘 좀 챙겨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에 자꾸 지니까, 아까 국세환급금이 얼마냐고 김태년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국세환급금이 3조 5000억이나 됩니다, 3조 5000억. 그리고 소송 비용도 1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

하고 소송 패소하고 퇴직자들은 가서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로펌에서 일하고 국세청은 그래서 또 패소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리를 끊을 방법을 취임하시게 되면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는 게, 선택에 근무하는 세무사·회계사분들이 보통 그 업계에서 몇 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글썄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계산들을 안 해 봐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정태호 위원 연수는 다 다를 텐데 그중에는 아까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사국장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형 로펌에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회계사나 세무사 영업을 길게 하신 분도 있고 짧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법인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한 7억 5000 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경우가 한 3억 5000 정도 되고 그렇게 보면 법인, 이 경우에는 1인당—회계사하고 세무사분들이 한 열 분 정도 된다 그러니까—평균 5억 정도 된다 보면 법인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개인보다는 좀 많이 벌고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게 자꾸 전관예우를 얘기하시면서 추궁을 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근거도 없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랄까 후보자의 자격을 잘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인사말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인사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까 첫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체납자가 엄청 많고 작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 폐업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정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합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조사한 것,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약 60~70%가 자금 지원과 세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니 세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더구먼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19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상황도 워낙 열악한

상황인데 이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지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보통 납부기한 연장을 할 때는 7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담보가 없이 연장을 해 주는데 이 금액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1억 원으로 상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현재 7000만 원인데 이걸 신속하게 빨리 올려 가지고 담보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제도가 뭐냐 하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 체납액 징수를 좀 늦춰 주는 제도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신청 요건이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최근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작년 거, 2024년 걸 보니까 2023년에는 승인율이 70%였는데 작년에는 60%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승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 요건을 완화해 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승인 건수는 좀 떨어지고 승인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징수특례에 해당이 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주고 최대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주는 혜택인데 역시 이 기준인 5000만 원을 좀 더 상향을 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세금을 잘 걷는 것도 국세청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그런 생계형 체납자를 잘 돌보는 것도 국세청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제도는 지금 시점에서 그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제도일 것 같아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국세청장으로 취임하시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국세청이 보여 준다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것이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열심히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의 독립성 그리고 인사 독립성을 말씀하시면서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 그리고 권력기관 파견 제한 그리고 세무조사 개입 금지 등 국세청법을 제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야 된다는 박수영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국세청법을 제정하자라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당 소속이었던 심재철 의원님께서도 이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정부 측에서 반대해서 이 법이 결국은 폐기됐는데 폐기된 내용이 뭔가요, 이유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국세청법은 국세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에 관련된 사안이라 정부 전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됐었던 이유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좀 제약이 있고 국세청에 대해서 너무 예외적인 그런 제도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같은데요 일단 정부조직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우선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유사 외청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또 더 나아가서 기존 법령 내의 조정 가능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해서 이 법이 결국은 폐기됐는데 이제 이 법을 다시 만들자라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부조직법과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지금 진성준 위원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자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기재부와 어떤 관계라든가, 아까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현재 국세청법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시작되거나 그런 단계는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유관 부처의 의견이나 논의는 향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아무런 교감이 없는 건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국세청법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국세청장후보자의 의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는 국세청법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직 내부와 외부의 공감대 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향후에 이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 주는 숫자 민주주의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세청 기본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법을 발의할 때는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서 국세청이 지금 실시간 소득과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지금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시간 소득과약체계가 구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실시간 소득과약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볼 때는 OECD 국가 수준과 비교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데 EITC 관련해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 소득과약체계가 구축돼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원이 이렇게 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EIT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ITC를 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력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하나는 EIT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 기준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추석 때 비록 작은 돈이지만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추석 명절을 쉴 수 있도록 가급적 그 전에 지급하고자 하다 보니 그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법에 있는 금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홍보 차원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돌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을 한번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을 다시 또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27년도까지 AI 대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 효율화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희가 근로장려금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과도한 인력은 아니고 현재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AI나 이런 부분이 도입된다고 하면 인력 감축이 분명히 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다른 나라 국세청에 비해서 대한민국 국세청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절약되는 인력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EITC 물가연동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재직 시절 세법 많이 발의하셨는데요. 대부분 감세 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후보자님 나름대로 고려사항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재정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의원 시절에 선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후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발의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 9597억 원, 5년간 9조 798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일찍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께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소득세 전체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연평균 16.5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5년간 총 82.4조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특히 근로소득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6조 원, 5년간 총 3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후보자님 보시기에 이 혜택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당연히 소득세가 누진제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규근 위원 더 많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좀 더 많겠지만 그게 고소득자에게는 미미한 금액이고 저소득층에게 절감되는 세액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요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규근 위원 2022년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물가연동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이 그래프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근로장려금 받아 보신 적 없으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저는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니까 아마 받으신 적 없으셨을 겁니다. 월급쟁이 유리지갑 지키기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리지갑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유리지갑이 먼저 누구인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더불어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차규근 위원 본 위원은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세비인 만큼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근로장려금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상당히 좋은 질의신 것 같아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오늘 제가 전관예우에 대한 시금식 또는 평가기준을 정립하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고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83년생 최대주주가 설립한 신설 법인이 21개월에 100억 매출을 올렸다.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은 전관예우가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알아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전관예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 말씀이라면 이 세상에 전관예우는 존재할 수 없지요. 만일에 수임계약을 강제로 강요하거나 멧게 요청을 하거나 압력을 가한다면 그것은 공갈죄지요. 어떻게 이게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 상식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올해 2월 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야 있겠지만 기업들이 공간에 돈을 쌓아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내유보금이 공간에 쌓아 두는 돈입니까?

후보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내유보금이 회계상으로는 이익잉여금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성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인식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때 제가 냈었던 보도자료의 취지는 내수 활성화가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세제를 위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공간에 쌓았다는 것은 쉽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중의 언어였고요. 제가 그때 그 법안을 발의했었던 것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를 좀 올려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영업활동을 하고 또 기업 주변에 있는 골목상권에는 내수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요. 후보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내유보금은 현금성 자산도 있지요. 그 외에도 실물 유형자산, 예를 들어 기계나 토지, 공장 등과 같은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또 현금의 자산 형태로, 매출채권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후보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사내유보금이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고 반기업 정서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지를 않아요. 후보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이러한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마지막이니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이게 정치가 또는 경제에 왜곡된 형태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치 논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오히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국세행정의 책임자가 되실 후보자님께서서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때 했었던 것은 반기업 정서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점이었는데 앞으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PPT에도 띄워 드린 것처럼 기업이 갚아야 할 빚인 유동부채에 비해서 현금성자산은 30% 안팎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기업들이 마치 창고에 돈을 쌓아 놓고 이자 늘어나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가 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보낸, 청문회가 있으니까 청

문회 때 꼭 질의를 해 달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근로장려금,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장애인인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합산가구는 4400만 원 정도면 주는데 지금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젊은 청년은 월 180만 원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삼십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근로장려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그 청년이 인상을 보면서 따뜻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꼭,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이 부분은 올라가지 않아서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정을 꼭 봐 줬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가 왔었습니다.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로장려금 기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급기준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급금액을 조금 더, 재정 여력이 된다면 지급보다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기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영세 납세자들에게 나중 세무사·회계사가 사업 주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세금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하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 수도권에만 49개가 배치가 돼 있다가 2024년에 비수도권에 10개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수도권은 58%, 비수도권은 42% 정도가 됩니다. 이런 퍼센트를 봤을 때는 비수도권 지역이 결국은 좀 여실히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고령인구도 많고 세무에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후보자님께서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보다는 지방도 고려하는 그런 정책을 다시 면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종전에는 관서별 방문 인원이 많은 수도권 쪽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향후에는 수도권 외에 고령화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님이신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천하람 위원 안 하시나요?

○위원장 임이자 먼저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앞선 두 번의 질문에 있어서 후보자님의 어떤 임명 의혹 또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의 제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으로 최초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고 당 소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시각은 후보자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약간의 모순만…… 남이 보기에, 평가할 때 조세정의나 또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자체로 후보자께서 그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특별히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 후보자께서도 특히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 또 최대한 국세청의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결국 그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지요.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약속하셨던 법과 원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엄밀한 국세행정 그리고 처리 이걸 당부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유념해서 법과 원칙대로 공정·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국세청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경기가 급속히 나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세수 수입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기부양 및 민생 안정을 위해서 확장재정의 기초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든 관리재정수지든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안정적 세수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라면.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게 징세의 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결국 그 소속 공무원들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국민들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말로 균형감각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납 세수를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에 확장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경제성장을 조금이라도 좀 제고시키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징세행정이 강화되지 않을 건가 하는 위원님의 우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한 점은 징세행정 강화로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원내대표이신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선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운영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 받으신 것 보니까……

우선 후보자님, 전국에 세무법인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잘 모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번에 윤영석 위원님이 자료 받으신 것 보니까 4400개 정도 있네요, 지점 포함해 가지고요.

여기 평균 매출액이—세무법인 기준입니다—한 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1인당 7억 이것은 저는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세무사님들도 ‘우리가 그렇게 잘 벌었으면 의대 대란이 아니고 다 세무사 대란 나지. 그렇게 잘 벌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지금 이렇게 신설 법인이 생겼는데, 평균 세무법인 매출은 8억 정도인데 첫해에 어마어마하게 해서 둘째 해 가니까 4000개가 넘는 세무법인 중에 매출 상위 100등에 들어가고 영업이익은 더 좋아 가지고 영업이익 상위 50개에 들어가요, 4000개 중예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게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10대 대기업집단 중에 제가 파악한 것만 4개가 돈을 싸들고…… 돈을 싸들고는 너무 좀 투머치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개업하자마자 막 와 가지고 자문계약을 하자라고 할 정도로 10대 대기업 자문을 막 따냅니다.

그런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도 후보자 말고, 그러면 이렇게 신설한 세무법인에 굳이 자문계약을 신속하게 해야 될 만한 뭐 어마어마한 다른 사유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재미있게 본 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2만 주가 있는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한 서너 분은 다 한 주씩밖에 없고요 임 모 세무사라는 분이 1만 9996주를 가지고 있어요. 99%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잉여가, 이익이 한 25억씩, 30억씩 나요. 그런데 그것 배당도 안 하고 지금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돈도 이것 배당받아 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임 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이것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 모 세무사라는 분은 국세청 경력 있으신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80년대생에 젊으신 분이예요. 그러면 국세청 차장까지 지내신 후보자 같은 대단하신 분은 고정급여로 심지어 인센티브도 없이 월급 12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젊은 세무사님은 20억~30억씩 수익이 나는데 왜 이분은 지분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것 혹시 저수지처럼 이분이 관리하면서 실제로 후보자는 돈을 많이 찾아가지 않지만 지금 계속 세무법인에 쟁여 두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 실제로 전부 임 모 세무사님이 찾아갈 수 있는 돈 맞습니까, 지분 구조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초기에 많았다고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무법인 선택에 있는 세무사들이 전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고 기존에 개인적으로 영업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매출의 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매출이……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그것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 나왔지 어떻게 저 때문에 초반에 그런 매출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10대 대기업의 그룹 중에 제가 아는 것만 4개 회사가 이런 대형 자문계약 체결하는 것 흔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 국세청 경력도 있으시고 다

른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분이 낮아요? 그분들도 지분 챙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은 지분 안 챙겨 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다 근로소득으로 챙겨 갔습니까? 왜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기업에 대한 건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업을 통해서 바로바로 소득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고요.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그것은 그 기업의 개별적인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천하람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독립채산으로 하시거나 인센티브로 많이 가져가시는 세무법인들 저도 많이 압니다. 저도 법무법인들도 보고 해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겨 두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렇게 지분을 몰아주기 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이 임 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은 홍성지점에 계시는 분이네요. 본사에서 본사 영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홍성지점에 계시는 젊은 세무사가 유별나게 이렇게 지분을 독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개별 기업에 관한 건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세무법인과 유사한 그런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박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신속하게 여쭙볼게요.

후보자님,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 대리업무 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세무사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줘도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따리 사무장, 사무장 세무법인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무자격,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사무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혹시 이런 존재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실제로 국세청에서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1

년에 건수가 되게 적어요. 한 20건, 14건 이런 식으로 발견하면 국세청에서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세무사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도 지금 후보자님 ‘있는지 찾아보겠다’ 하는 정도로 국세청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세무사회와 명의를 대여해 준 은퇴한 세무사, 세무사 OB 간에 일정한 카르텔 비슷하게 서로 봐주기를 해서 세무사가 아닌 사람들이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AI 세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모두 말씀하신 것 중에 신고제를 계속 고쳐 나가겠다는 부분하고 AI 세정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AI 세정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무행정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후진국이고요. 줄 썩 서서 연말정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를 가면 국세청에서 본인한테 이메일을 날려요. 이메일을 읽어 보고 괜찮다 이러면 자기가 클릭만 하면 그대로 연말정산 세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세무사를 고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90% 이상이 다 옵트인(Opt-in)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개발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AI 개발 따로 하고 세무신고는 또 어찌고저찌고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거나 건보공단이가 갖고 있는 시스템마저도 더 개발할 필요 없을 정도로 국세청이 가진 소득 데이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걸 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번에 지역화폐 나누어 주는 이런 것도 따로 시간 들어서 누가 10%고 누가 20%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국세청이 다 가진 데이터예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AI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를, 지금 현재는 사업자 한 1100만 명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가급적 신고 내용을 저희가 가진 자료로 채워서 거의 그냥 클릭만 하면 신고가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AI가 도입이 되면 그게 획기적으로 더 늘어나서 더 많은 분의 신고가, 편의가 더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 세무사 부분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세무사.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아, 세무사 그 부분도 저희가 세무사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기상 위원님, 그래서 1분 더 드리고 4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복지세정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많이 말씀하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한 부분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전부 복지세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께서 보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챙겨 봐 주시기를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어제, 오늘 연달아 안타까운 기사들이 났어요. 오늘은 영종도에서 어제는 동탄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죽게 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언론에서도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루지도 않습니다. 모모 사람의 형사재판 기사나 쓰고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를 쓰지……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녀를 죽게 하고 사망한다는 것은 살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됐을 때 저는 이게 혹시 세무행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혹시 없을까, 그리고 저도 법원에 있으면서 이게 재판에서 최후의 수단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복지세정 관련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보람을 느끼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도 있다—우리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결국 리더의 책임이더라고요. 세무서장의 책임이구요.

국세청의 인사가 가령 세무서장들이 개업하기 좋은 곳에 마지막 세무서장 발령을 내주고 가서는 개업할 준비만 하는 이런 선택의 모습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하여튼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최기상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죽어 가고 계시잖아요. 세금 때문에 혹은 저는 법원에 있었으니까 법원의 재판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공무원들은 다음에 내가 나가서 어디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막 임지를 선택하고 그거를 공공연하게 이해해 주는, 그래야만이 후배들도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니까, 이런 식의 공무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인사 하실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원하는 세무서장 발령 내지 말아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부끄러운 일이에요. 법원에서도 서울중앙법원의 형사재판, 언론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중요한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어요. 3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판사들도 관심이 덜하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그 사건에서 곤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반성적 차원에서 어떤 것을 도입했냐면 법원장이 소액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해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중앙법원에 있는 형사합의 사건이나 민사합의 사건, 반대로 국세청장이 관심 가지는 대기업 사건은 관심 안 가지셔도 알아서 공격·방어 다 합니다. 그러나 일선의 세무서에서 직접 만나는 생계형 체납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관심 안 가져 주시면 아무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손을 마지막에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일선에서 일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저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사회적 약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면밀히 그리고 따뜻하게 저희 국세행정이 보듬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오늘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시작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의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최초의 정치인 국세청장, 국회의원으로서는 국세청장에 임명됨으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그와 관련돼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상당히 보여 주셨고요.

또 하나는 전관예우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천하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후보자 입장에서는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임광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장후보자 임광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가 좀 더 필요하고, 두 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실 때에는 소수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임이자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청가 위원(2인)

안규백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출석 공직후보자

임광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송언석	박성훈	국민의힘	2025. 7. 11.

○의안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이상 5건 7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이상 4건 7월 10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이상 3건 7월 11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7)

7월 1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부령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129호	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3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3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3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1137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